

예술과만남

2023 Vol 164

10+11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포커스 기술의 발전과 예술의 본질

인터뷰 예술감독 김대진

프리뷰, 하나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

모두의 기회, 모두의 피아노

담당자의 노트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세계 장애 무용계 화합과 연대의 장

Sergei Vasilyevich
Rachmaninoff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1873-1943>

러시아계 미국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후기 낭만파 음악가로, 그의 작품은 다양한 악곡 형식과 장르를 포괄하지만, 그 안에서도 슬라브적인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그의 작품 중에 4개의 피아노 협주곡이 유명하다. 현대 피아니스트의 정립에 큰 공헌을 했다.



두드림을 두 드 리 다 살아있음의 판타지 Dream Rhapsody

가을의 시련은 겨울의 새벽으로 다가왔다.
계절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하얀 세상이 설레는 지금

살아있는 것들은 저항하고 사랑하며
힘차게 고동치는 모든 맥박들과 함께한다.

연못을 즈러밟고 살포시 튕겨나는 소금쟁이처럼
때로는 호수를 두드리는 빗소리처럼
건반 안에 머무는 순간 풀잎도 주인공이다.

터치 속에 세상을 담고 세상을 잇으며
서정과 걱정의 기로에서 꿈꾸는 나를 바라본다!



CONTENTS

GGAC's Theme

08

아트 인사이드

피아노의 놀라운 진화

12

포커스

기술의 발전과 예술의 본질

16

인터뷰 I

피아노의 새로운 진면모

발견하는 축제의 장

예술감독 김대진

20

인터뷰 II

미디어 시대의 시나위 <디오니소스 로봇>

연출가·출연진 인터뷰

24

내다보기

우리, 서(書)로 만날까요?

독립서점

On Stage

28

프리뷰, 하나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

모두의 기회, 모두의 피아노

30

프리뷰, 둘

미디어 콘서트 <디오니소스 로봇>

타악과 전자음향,

인성에 의한 심포니아

32

프리뷰, 셋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세기의 명작 화려한 피아니즘의 진수

34

리뷰, 하나

왕숙천 윤슬처럼 빛났던 예술 무대

<거리로 나온 예술>

36

리뷰, 둘

경기민요가 누군가를 위한 음악이 될 때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시나위 악보가게 IV

<환갑>

Art N Culture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괴물의 일상성 기록 보존의 가치

44

이달의 책과 음반

과학적 시의 선 넘기와

사색적 인간의 선긋기

46

컬처로드

건축, 감성을 빛다

50

예술 알고리즘

예술과 과학의 미세한 교감

광음향 아트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GGAC Story

58

GGAC VLOG

수준 높은 관객 경험을 위해

60

담당자의 노트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세계 장에 무용계 화합과 연대의 장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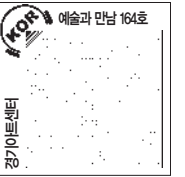
CALENDER

10·11월 주요 공연 일정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예술과만남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23 VOL.164 10 + 11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3년 10+11월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서춘기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 허명현, 탁나희,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전화 031-230-3242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ISSN 2234-5949
기획·디자인 방형식·디자인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COVER STORY

이번 호 표지를 장식한 주인공은 올해 탄생 150
주년, 서거 80주년을 맞은 천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입니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라흐마니
노프 교향곡 2번>으로 관객과 만날 그의 음악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정열과 우수의 선율로,
지치고 힘들 때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TALK

<예술과만남>을
카카오톡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 감성과 혁신적 기술이 만나 새로운 예술의 형태가
탄생하고 있다. 이른바 상상 속 현실이 실현되는 가능성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고, 창작자의 창의성과 표현력
을 향상시키는 테크놀로지. 논리적 서사가 웃음기 뺨 이성을 만났을 때,
우린 예술을 탐^貪한다.



GAGAC'S THEME

PIANO EVOLUTION

피아노의 놀라운

진화

피아노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금의 모습과는 제법 다른 외형의 조상을 만나게 된다.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래한 '산투르'라는 악기다. 단단한 틀에 고정된 줄을 채로 두들겨 연주하는 타현(打弦)악기인데, 연주자가 목에 걸고 연주했다고 한다. 이 악기가 문명의 교류를 통해 각지로 전파되어 다양한 후손을 남겼다. 동유럽의 침벌룬, 영미권의 덜시머, 동아시아의 양금 등이 대표적이다.



GGAC's Theme 아트인사이트



클라비코드



크리스토포리가 1720년에 제작한 피아노포르테

바로크 시대 건반악기, 클라비코드

고대 동방에서 전해진 타현악기가 중세 서양의 파이프오르간에서 사용되던 건반이라는 기계장치와 만나 탄생한 것이 14세기 초에 발명된 클라비코드다. 건반을 누르면 작은 쇠조각이 현을 때려 소리가 생성되는데, 건반을 누르는 힘에 변화를 주면 소리의 강약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음량이 작아 연습 및 교육 용도로 활용됐다고 한다. 당대에 연주용으로 선호되던 건반악기는 작은 돌기로 현을 뜯는 구조의 하프시코드 그리고 교회의 파이프오르간이었다.

현대 피아노의 직계 조상은 이탈리아의 악기공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1655-1731)가 만들었다. 그는 건반에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려 소리를 생성하는 방식의 건반악기를 발명했는데 이것이 피아노의 원형이라고 일컬어진다. 해머가 현을 때린 후 계속 현에 닿아 있으면 울림을 방해하게 되는데, 크리스토포리는 해머가 현을 때린 후 빠르게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악기를 제작했다. 이 악기가 수많은 장인에 의해서 개량되고 발전되어 현대의 피아노가 된 것이다.

고대 동방의 타현악기와 중세 서방의 건반 기술이 이종교배되어 현대의 피아노라는 자식을 낳은 이후,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피아노는 갈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저변이 확대됐다. 건반의 개수가 늘어 표현할 수 있는 음의 영역이 넓어졌으며, 길이 3미터에 달하는 대형 콘서트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의 음량을 뚫고 자신의 소리를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업라이트 피아노도 등장해 중산층이 집에 놓고 연주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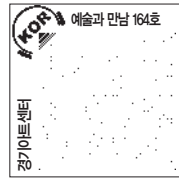
녹음·재생·편집 가능한 피아노

피아노의 발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최첨단 반도체 및 인터넷 기술과의 이중교배를 통해 새로운 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흔한 전자 피아노 얘기 아니냐고? 오해하지 마시라. 전자 피아노는 정확히 분류하자면 전자악기이지 해머가 현을 때려서 소리를 생성하는 ‘타현악기’는 아니다. 지금은 타현악기로서의 피아노를 얘기하는 중이다.

스타인웨이의 ‘스피리오 r’, 아마하의 ‘디스클라비어’ 같은 자동 연주 피아노가 바로 그 진화종이다. 연주자 없이 혼자 연주하는 피아노가 뭐 그리 새로운 게 있느냐 싶겠지만, 이전의 자동 연주 피아노와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녹음, 재생, 편집 기능이다. 피아노가 무엇을 녹음 하냐고? 바로 연주 행위 그 자체다.

구동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피아노와 무선으로 연결하고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면, 피아노에 장착된 센서는 내가 건반을 누르는 과정과 페달 밟는 방식 일체를 디지털 데이터로 촘촘하게 기록한다. 단순히 어떤 건반을 눌렀고 언제 페달을 밟았다는 수준이 아니다. 타건 시 해머가 움직이는 속도를 초당 800회 빈도로 측정하면서 그 속도를 1,020개의 레벨로 세분화해 기록한다. 페달의 경우도 초당 100회 빈도로 측정하며 페달 위치를 256개의 높이로 나눠 저장한다. 이를 통해 연주자의 미묘한 건반 터치와 페달링이 고스란히 디지털로 정보화된다.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면 피아노는 저장된 정보를 토대로 건반과 페달의 디테일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구현해, 연주자 고유의 음색과 연주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한다. 게다가 저장된 타건 방식과 페달링을 앱에서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연주를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스타인웨이앤선즈 그랜드 피아노



침발륜

피아노 자동 연주와 만난 ‘악’ 소리 나는 기술

자동 연주 피아노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자신의 연주 행위를 녹음하고, 피아노 구매자는 집에서 해당 녹음 파일에 접속해 세계적인 음악가의 연주를 생생하게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피아노 연탄곡도 혼자서 연주할 수 있다. 한 사람 몫을 미리 녹음해놓고 그것을 재생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연주하면 된다. 성악가나 솔리스트는 피아노 반주자와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사전에 따로 반주를 녹음하고 연주회 당일엔 자동 연주 피아노로 재생하며 공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피아노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마스터클래스나 연주회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에 있는 교수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타건 및 페달링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한국에 있는 학생의 피아노로 전송돼 실시간으로 재생된다. 피아니스트 랑랑이 자동 연주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앱으로 방을 개설해 피아노 소유자들을 초청하면, 한국에 있는 피아노 소유자는 해당 방에 접속해 랑랑 연주 디지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자기 피아노에서 재생해 감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호사는 ‘악’ 소리가 나는 자동 연주 피아노를 소유했을 때나 누릴 수 있지만 말이다. 하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최초의 피아노 개발자인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는 유럽 최고의 재벌가 메디치 가문에 고용되어 악기를 제작하고 납품했다. 초기 피아노는 그 당시 최고 재벌이나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니 첨단 반도체, 전자, 인터넷 기술과 결합해 진화된 피아노가 ‘악’ 소리 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간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의 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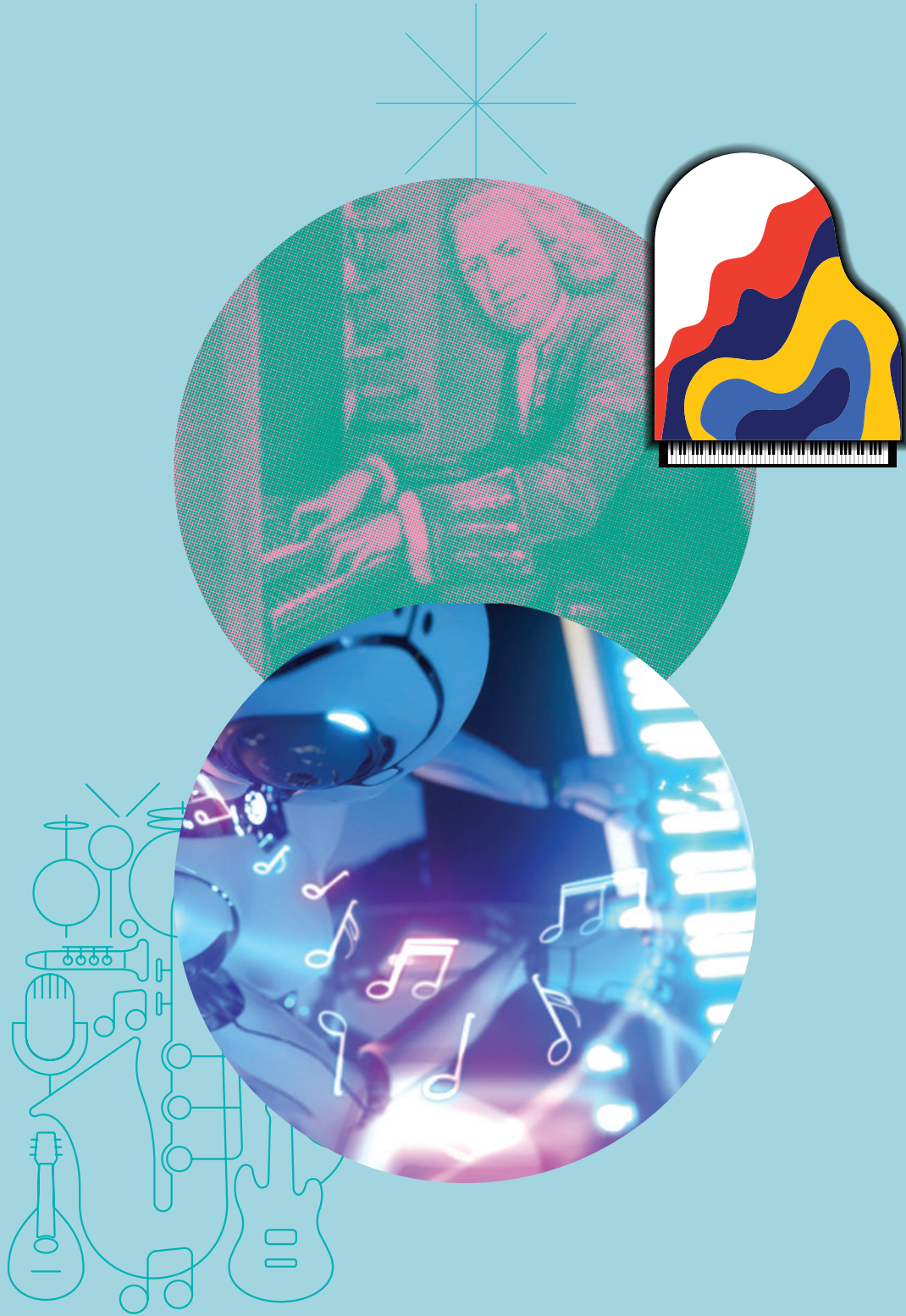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언젠가는 중산층의 집에도 자동 연주 피아노를 둘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백 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야 있겠는가. 공공기관에서 자동 연주 피아노를 구비해 유명 연주자의 녹음을 들려주는 정기 음악회를 개최하면 어떨까. 실제로 의정부 음악도서관은 2021년 6월 개관 이래 지금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시간씩 자동 연주 피아노 감상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랑랑이나 유자 왕을 동네 도서관에 초청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자동 연주 피아노를 장만해 그들의 연주를 매일매일 재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가 아닐까.



스피리오 앱 화면

글 임승수

본업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쓰는 작가이지만, 취미에 나를 진심이다 보니 《피아노에 몹시 진심입니다만.》, 《와인에 몹시 진심입니다만.》 등의 책도 썼다. 취미와 업의 경계선이 시나브로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삶의 변화를 내심 즐기는 중이다.

기술의 발전과
예술의 본질GGAC's Theme
포커스

7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바둑 기사 이세돌과의 세기의 대결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인간과 인공지능^(AI)의 대결에서 이세돌의 우승을 예견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파고는 당시 대결에서 우승했고, 이후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인간이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익혀야 하는 지식의 습득을 단 몇 초 만에 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진화한 대화형 AI 서비스의 도래

올해 인공지능과 관련해 매체에 가장 빈번히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챗GPT일 것이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전 세계 주요 매체에서 챗GPT와 관련된 소식을 다루고 있다. 챗GPT는 오픈AI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이다. 기존의 한정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제한적인 답을 주는 챗봇 대신 이 챗GPT는 대량의 언어를 최신 AI 기술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다.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작업 능력으로 인간이 하는 말의 문맥, 배경 등을 이해하고 답하는 등 거의 인간과 인간의 대화처럼 느껴질 정도로 진화한 대화형 AI 서비스다. 코딩, 복잡한 사칙연산 그리고 의료, 법률 같은 전문 분야와 관련한 신뢰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시, 소설 같은 창작도 일정 수준 이상 가능하다. 특히 음악 관련 원서를 리서치할 경우 큰 도움이 됐다. 일례로 최근에 17세기 독일 바로크 작곡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남긴 편지를 살펴볼 일이 있었다. 현대 독일어와 다른 바흐가 살던 바로크 시대의 독일어 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원서 내용을 현대 독일어로 바꿔 달라고 챗GPT에 지시했더니 정말 알아보기 쉽게 바뀌워 놀랐다. 또 반대로, 현대 프랑스어로 감정을 담은 간단한 문장을 주고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 프랑수아 쿠프랭(François Couperin)이 살던 17세기 프랑스 문학 스타일이 반영된 시로 바꿔 달라고 했더니 정말 꽤 그럴듯한 작품이 나왔다.

거의 그대로 VS 완벽히 똑같이 재현

올 초 기술과 관련된 꽤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비록 챗GPT는 아니지만 진보한 기술을 음악과 어떻게 접목하려고 시도 중인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하는 대학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로베르트 슈만의 한 피아노 작품을 녹음했다. 일반적인 마이크로 녹음하는 것이 아닌 스타인웨이앤드선즈(Steinway & Sons)의 자동 연주 피아노 '스피리오(Spiri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녹음을 진행했다. 신기한 점은 이 스피리오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손가락이 건반에 접촉하는 압력을 초당 800번의 빈도, 1,020단계의 세기로 인식한다. 또 발로 페달을 누르는 것을 초당 100번의 빈도, 256단계의 깊이로 인식한다. 그리고 연주를 마친 후 재생 버튼을 누르면 녹음 시 입력된 값을 그대로 재생하는데, 연주한 거의 그대로를 재현해 냈다.

물론 어떤 과정을 통해 녹음과 재생이 되는지를 알기에 방금 '거의 그대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을 몰랐다면 '완벽히 똑같이 재현해 냈다'라고 감쪽같이 속았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연결을 통해 뉴욕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니 등 지구 반대편에서 콘서트가 열려도 스타인웨이앤드선즈의 스피리오 모델이 있으면, 집 거실에서도 눈앞에서 악기가 라이브로 연주해내는 모습을 보고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필자도 이 스피리오 녹음을 서울에서 했는데 프랑스 파리 및 독일 함부르크의 스타인웨이앤드선즈 쇼룸을 연이어 방문해 재생했을 때도 그대로 연주가 재현돼 무척 신기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 같은 피아노라도 악기마다 서로 다른 터치 및 소리의 느낌이 있다. 그리고 악기가 놓여 있는 공간 울림의 조건에서 인간이라면 충분히 인식하고 조절해 냈을 섬세한 제어 능력 등 인간 특유의 매번 달라지는 감정의 즉흥적인 표현은 아직 불가능하다.

그렇다. 바로 이 매번 달라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또 경험에 따라, 시간에 따라 각기 달라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즉흥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아직 그 어떤 최신 AI 기술도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능력에도 진보하는 기술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도전하는 중이다.

그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AI 피아니스트인 '비르투오조넷(VirtuosoNet)'이다. 비르투오조넷은 남주환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정다샘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교수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악보에 적힌 템포, 셈여림, 음길이, 페달 등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간이 감정을 갖고 표현했을 법한 값들 데이터로 도출해 자동 연주 피아노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피아노는 이 신호를 통해 자연스러운 연주를 선보인다. AI 기술의 특성상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다양한 연주 샘플을 프로그램에 인식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AI 연주의 다양성이 증대될 것이다.



인공지능(AI)과의 게임 대결

왜 기술이 예술, 음악에서 필요한 것일까

물론 기술은 앞으로 더욱 진보해 언젠간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또 정말 즐길 수 있을 수준의 음악 연주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 본다. 왜 이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특히 예술, 음악에서 필요한 것일까.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 예술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존재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객관식의 간단한 질문이 아닌 우리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면서부터 던져왔던 것이다. 이 정답 없는 질문에 정답 없는 대답들이 쌓여가며 예술을 향한 인간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또 인간의 영감을 자극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표현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진보하는 기술과 인간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지금껏 인류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요즘일수록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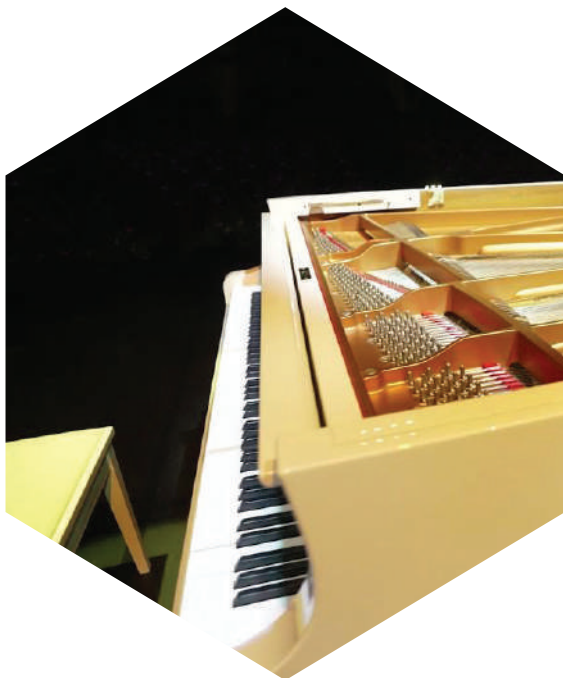
재현하기 어려운 예술을 향한 인간의 히스토리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오르는 순간 종종 '연주하다 실수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며 긴장하는 마음을 부여잡곤 한다. 많은 음악 연주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이든, 음악적이든 한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수십, 수백 시간을 연습실 안에 홀로 갇혀 연습한다 한들, 그래서 잘 숙련이 돼 있다 한들 무대에서 펼쳐지는 그 한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수할 수도, 원하는 만큼 표현이 안 될 수도, 반대로 무대 위의 즉흥적 영감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감응하는 등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완벽함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너무도 인간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고 또 해내기 위해 한 예술가가 연습실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 그리고 한 인간이 삶을 살며 세상과 교감하는 동안 얻어지는 영감, 감정의 깊이 등 인간 고유의 히스토리 또한 기술이 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지극히 인간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점에서 고개가 바로 끄덕여지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KAIST 인공지능(AI) 피아니스트 '비르투오조넷(VirtuosoNet)'



AI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 피아노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완벽함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너무도 인간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고 또 해내기 위해
한 예술가가 연습실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
그리고 한 인간이 삶을 살며
세상과 교감하는 동안 얻어지는 영감,
감정의 깊이 등 인간 고유의 히스토리 또한
기술이 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지극히 인간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글 안종도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연주학 박사, 전 함부르크 국립음대 기악과 강사. 오랫동안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사와 여행에 관한 글로 청중과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피아노의 새로운 진면모 발견하는 축제의 장

예술감독 김대진



GGAC's Theme 인터뷰 I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은 피아노에만 집중하는 국내 최초 단일 악기 전문 클래식 페스티벌이다. 2023년 올해의 주제는 '모두의 기회, 모두의 피아노'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및 폭넓은 출연진과 함께 도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총장에게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의 역사와 의의, 2023년 행사의 매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글_ 편집부 사진_ 이성원

페스티벌 이끄는 김대진 예술감독

김대진 예술감독은 어린 나이부터 피아니스트로 활약하며 교수, 지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다. 경기피아노페스티벌(舊 P&PF)은 그런 김대진 감독이 기획한 국내 최초 단일 악기 전문 클래식 페스티벌이다. “대한민국 클래식 역사에서 피아노는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악기이자, 해외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 1세대 클래식 음악가들의 악기 또한 피아노죠. 저 자신 또한 피아니스트로서 이렇게 의미가 깊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다양한 면을 살펴보는 페스티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뜻있는 이들과 함께 2011년 처음으로 선보인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은 2023년인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는 이렇게 오래 유지되고 있는 클래식 페스티벌이 드뭅니다. 그런데 심지어 축제의 주제가 피아노이니, 피아니스트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뿌듯하며 행복한 일이지요. 앞으로도 이 축제가 계속 이어져 세계 유명 페스티벌처럼 몇십 년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클래식 페스티벌’ 김대진 예술감독이 페스티벌 1회 때부터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축제에 꾸준히 반영해 온 것은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남의 나라 고전 음악에 대한 이질감이 아말로 우리나라 클래식 축제가 갖고 있는 한계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질감을 최소화하려면 도민들과의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부제에 걸맞게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발한 연주가, 수원 출신 연재 피아니스트,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참가자를 초청한 점이 눈에 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도민들과 함께하는 ‘모두의 기회, 모두의 피아노’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이 도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기대와 신뢰 주는 피아노 페스티벌

김대진 예술감독이 생각하는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의 중요한 역할은 ‘신인 예술가가 관객과 만드는 장(場)’이다. “페스티벌을 즉각적으로 흥행시키려면 유명 연주자의 소위 ‘티켓파워’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길게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니죠. 한편 우리나라는 재주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대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들이 연주 기회를 얻는 것은 다 콩쿠르 수상 이후 얘기예요. 콩쿠르 수상이 예술가 자격을 인증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김대진 예술감독은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연주자와 듣는 이 모두에게 기대이자 신뢰가 되기를 바란다. “관객이 ‘내가 모르는 연주자이지만 이 페스티벌에 나오는 연주자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페스티벌, 신인 연주자는 ‘내가 이 페스티벌을 통해 인정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이 행사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이자 신뢰란 결국 좋은 연주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젊었을 때 문화 소외지역에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연주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집중하는 일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연주가 좋다는 말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지만, 결국 ‘좋은 연주’가 클래식을 보급하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소리가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곡 해석이 좋았을 수도 있고, 혹은 연주자가 잘생겨서일 수도 있지만 (웃음)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객을 만족시키는 연주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 축제가 지속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축제는 앞으로의 10년이 지금까지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INTERVIEW

김대진



결국 '좋은 연주'가
클래식을 보급하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객을 만족
시키는 연주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 축제가 지속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축제는
앞으로의 10년이 지금까지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전 세계 음악인 축제가 되길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의 활약에 K-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려오는 요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10년을 바라보는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의 나아갈 방향은 한국 클래식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 이제 엄연한 클래식 선진국이지만, 그 위상에 따르는 책임감에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평소 아무런 교류가 없다가 매해 홀연히 나타나 상만 독식하곤 사라지는 한국을, 콩쿠르 개최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K-클래식이라는 말이 세계 음악계에 기여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한국 클래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만 사용되는 거라면 오히려 한국 클래식을 고립시킬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페스티벌이 세계 음악가들의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가령, 어느 해에는 이전 출연자들만 다시 출연하는 홈커밍 페스티벌을 하는 것도 좋겠죠.”

한국 클래식이 K라는 이니셜에 갇히지 않아야 하듯이, 김대진 예술감독은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이 음악계를 넘어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 또한 밝혔다. “요즘 사회 분열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경계를 넘나들며 공감의 힘으로 분열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예술, 특히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페스티벌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축제

김대진 예술감독이 소개하는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행사다. 먼저 축제의 문을 여는 첫날 공연에는 김대진 예술감독이 직접 출연해 피아노 오케스트라로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연주한다. “운명은 두 명이 쳐도 합이 맞기 쉽지 않은데 30명이 연주한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피아노라는 악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새로운 시도를 해 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아노만큼 한국인에게 친숙한 악기가 없어요.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오히려 소원해진 악기랄까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피아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메뉴’ 덕분에 누군가는 페스티벌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클래식에 입문하겠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의 출연도 화제다. 영국 기사 작위 수훈자, 그래미상 수상자, 이 시대 최고의 바흐 전문가, 고전 시대 레퍼토리의 최고 해석자 등 수많은 수식어로 소개되는 그이지만, 그 모든 표현을 아우르는 김대진 예술감독의 호평은 핵심을 짚는다. 바로 ‘자신만의 소리’다. “다른 악기와 달리 피아노는 연주자가

개인 악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 일생의 공포는, 매년 자신이 연주해야 하는 피아노를 불과 몇 시간 전에 연주해 보고 무대에 올라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런데 쉬프는 어떤 피아노로도 자기만의 소리를 구현해 내요. 자기가 추구하는 소리 그리고 그런 소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짧은 시간 만난 피아노로 매번 자기 소리를 내기는 힘들거든요. 쉬프만큼 능력 있는 피아니스트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 주요 피아노 듀오 콩쿠르를 석권한 신박듀오가 출연한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는 보통 솔로 지향으로, 피아노 듀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는 신박듀오를 높이 평가하고, 동시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어요. 신박듀오의 매력은 소리의 블렌딩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피아노 두 대로도 한 사람이 치는 것 같은 연주가 가능하지요.”

이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이번 경기피아노페스티벌에 대한 김대진 예술감독의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클래식 축제라고 해서 지레 어렵게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는 자주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으니 반드시 한두 개는 공감하실 수 있는 공연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지요. 꼭 오셔서 들어보세요!” 경기피아노페스티벌로 더욱 풍성할 가을이, 도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





미디어 시대의 시나위 <디오니소스 로봇>

연출가·출연진 인터뷰

지난해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선보인 <디오니소스 로봇>이 10월 20~22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에서 더욱 새롭게 풍성해진 미디어 콘서트로서 관객과 만난다. 관객이 영적 세계를 체험토록 하는 시나위(무악^{무악})의 혁신적인 현대음악 버전인 이 작품에 대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원일 예술감독, 올리버 그림 영상감독, 최희선 양금 단원, 함영선 성악 단원이 답했다.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시나위와 백남준 그리고 디오니소스

인간다움과 로봇

“세 마녀(무녀)가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부른다. ‘나는 꿈속에서 깨어나, 꿈에서 본 강렬한 환상을 소환하며 현실에서 꿈속 삶을 기억한다.’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디오니소스 로봇>은 시나위와 백남준, 디오니소스와 로봇을 연결하는 원일 예술감독의 고민 끝에 탄생한 작품이다.

“2022년 통영국제음악재단으로부터 작품을 위촉받고 고민했을 때, 첫 실마리는 백남준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이름에도 있는 ‘시나위’를 예술로 펼친 인물이 누군까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 선생님이 떠올랐죠. 그리고서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질서 잡힌 예술을 상징하는 아폴론과 대비되는 디오니소스의 예술이야말로 시나위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백남준과 디오니소스, 시나위를 연결했을 때 그 건너편에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인간이 로봇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부딪혀 경험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등에 의해 입력된 정보로 세뇌된 줄도 모른 채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로봇을 부수며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 ‘제의’라는 공연 형식을 빌려 인간 내면에 잠재된 광기를 표현해보고 싶다는 결론에 다다라, 제목을 ‘디오니소스 로봇’이라 짓게 됐습니다.”

원일 예술감독은 주인공인 디오니소스의 죽음(꿈, 환각)과 부활(각성)을 통해, 그 인간다움이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태도”라 힘주어 말한다. “보통 우리는 ‘살아서’ 살고 있으니 죽음이라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지만, 그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일 것입니다. 우리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환원 불가능한 유한한 삶’을 자각하고 ‘죽음’을 간접 경험했으면 합니다.”

환원 불가능한 삶

삶을 기억토록 하는 꿈과 죽음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원일 예술감독은 음악에 있어서 변화무쌍한 시도를 했다. “예측할 수 있게 흘러가는 소리와 달리, 소리를 계속해서 전환하면 관객은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꿈속에서 환상을 경험하는 디오니소스’라는 작품 속 내용과도 연결되는 요소예요. 꿈은 맥락이 없는데 개연성 있는 음악으로는 이를 표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음악을 자기 몸속에서 꺼내 놓아야 하는 가창자 함영선 단원은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관객이 작품과 더욱 공감할 수 있으리라 설명한다.

“낮선 소리를 내는 작업이 어색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감독님이 마녀(무녀)의 소리를 내보라고 하셔서 여러 시도 끝에 목 굽는 소리를 내다가 목소리가 나가 버린 적도 있어요(웃음). 하지만 그러는 사이 어느새 제가 정말 마녀의 그것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컥울컥 울음이 나오고, 갑자기 신명이 나고요. 이 작품을 통해 ‘내 안에 내가 몇 명이지’ 스스로 놀라며 새로이 ‘나’를 찾는 경험을 했어요. 모든 마음을 자유로이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객분들도 억눌렸던 새로운 감정을, 저희를 통해 풀어내는 경험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내 안의 다른 나를 발견하는 작품인 만큼 사실 여러 번 관람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환원 불가능한 삶 그리고 시나위’를 표현하기 위해 출연자들이 즉흥적으로 메워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도 작품의 특징이다. 양금을 연주한 최희선 단원은 “매번 두렵고 긴장되고 설레는 작품이자 연주자 입장에서서는 힘들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할까 기대되는 공연”이라고 밝혔다.

“로봇이 되어 작곡가가 입력한 정보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연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연주자 개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각기 연주자들이 어떤 연주를 해도 다 담아내는 큰 바구니를 감독님이 만들어주셨고, 여기서 로봇이 아닌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판단해서 표현함으로써 바구니의 무늬가 바뀌는 작품이에요. 관객분들이 그 순간, 근경과 원경을 번갈아 보듯이 연주자 각자의 연주와 전체 그림 속 소리를 번갈아 들으시면 작품을 더욱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 교감하는 새로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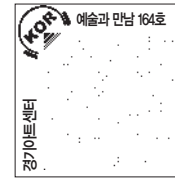
통영에서 닻을 올린 <디오니소스 로봇>은 반응에 힘입어 지난 해와 올해 유럽으로 떠나 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체코-독일-세르비아의 관객들을 만났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함영선 단원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함께 빠져드는 경험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한다. “함께 춤추고, 집중하고, 느끼며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헝가리 공연에서는 관객석이 정말 가까웠는데요. 긴장도 됐지만 그만큼 관객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마주 보는 눈빛에서 고스란히 느껴져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끝나고도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원일 예술감독은 함부르크 공연에서 공연예술의 가장 단단한 ‘고갱이’를 확인했다. “모든 시나위를 거친 공연의 마지막, 모두 휩쓸려 가는 거대한 카오스 속에서 전력을 다했다는 서글픔 내지는 카타르시스만이 남았을 때, 빛이 비치고 모든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서로에게 집중하며 함께 희열을 느끼는 영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침묵이란 죽음을 설명하는 가장 직설적인 선택이고 표현이기에 더더욱 그래요. 소리는 침묵으로부터 나오고, 삶과 죽음은 공존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번 함부르크 공연에서는 약 40초가량 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공연 그리고 공연이 멈춘 후의 거대한 에너지야말로 가장 여실하게 자기를 증명하는 공연예술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예술감독 원일

영상감독 올리버 그림



“함께 춤추고, 집중하고, 느끼며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헝가리 공연에서는 관객석이 정말 가까웠는데요. 긴장도 됐지만 그만큼 관객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마주 보는 눈빛에서 고스란히 느껴져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끝나고도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양금 최희선

성악 함영선

더욱 새롭고 화려해진 <디오니소스 로봇>

유럽 순회를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작품 <디오니소스 로봇>은 더욱 풍성한 내용의 미디어 콘서트로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 30분 작품은 60분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서사, 무용, 영상, 일러스트가 추가됐다. 덕분에 작품 속 추상적인 내용이 관객에게 훨씬 쉽고 몰입도 있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무용은 디오니소스가 육화(肉化)한 존재다. 그리하여 관객을 대신해 무대 위에서 미치고, 슬퍼하고, 죽은 후, 부활하는 역할을 맡은 毛魚(모어) 모지민 무용가에 대해 원일 예술감독은 “즉흥에 능하고, 미세한 감각으로 관객을 끌어당기는 천부적 능력과 시와 같은 춤을 추는 분”이라며 “더불어 드랙퀸 아티스트라는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신, 정령을 표현하는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원일 예술감독과 이전부터 함께 작업을 해온 독일인 올리버 그림 영상감독은 “한국의 국악도 이렇게 커다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데 무척 놀랐다”며 “그 에너지를 관객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러시아 일러스트레이터 다한과 함께 소용돌이치는 심연, 환각 속 세계 등을 표현했다”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화려한 무복(巫服)으로 갈아입고 보는 이를 홀릴 미디어 콘서트 <디오니소스 로봇>이 올가을 새로운 시나위를 시작한다. ◀



우리, 서(書)로 만날까요?

독립서점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청년1981동 201호
- 영 업 화~일 10:00~18:00, 월요일 휴무
- 인스타 @bird_books
- 문 의 010-9239-6022

책과 사람을 잇는 작지만 큰 공간, 독립서점.
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흔하지 않은 책’을 눈여겨보다 보면
어느새 작은 책방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
책이 진열된 모습, 책등의 감촉,
흐르는 배경 음악, 감도는 향기 등은 덤이다.
오늘도 독립서점에 가는 이유다.

GGAC's Theme 네다모기

#수원

국내 1호 탐조 전문 서점

새와 자연 그리고 사람을 잇다, 탐조책방

탐조책방은 산책하며 일상에서 새를 만나고, 도시에서 새와 자연, 책과 생태문화를 잇는 국내 최초 탐조(探鳥) 전문 서점이다. 탐조(探鳥)란 자연 상태에 있는 새를 관찰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고급 레포츠로 알려져 있다. 탐조책방은 바로 도심에서 탐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주지 주변 생태계 이해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2021년 문을 연 이곳에는 조류 도감과 그림책, 여행기, 생태 관련 서적들로 가득하다. 전문화된 소규모 서점인 동시에 일반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탐조 프로그램 운영 등 탐조 입문자들의 허브가 되고 있다. 특히 탐조 관련 책이 새로 나오면 저자를 초청해 북토크나 새 전문가의 강의 그리고 책방 옆 공간대여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 인공새집, 새먹이대, 영화 등의 활동도 가능한 공간이다.

늘 곁에 있지만 인식하지 못해 보이지 않았던 새처럼, 익숙해서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의 존재처럼 탐조책방은 우리 일상 속의 새와 이웃, 가족들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아지트가 되고 있다. 책 및 권과 가벼운 쌍안경 하나면 충분한 이곳 새라는 존재가 삶에 들어온 것이 행운이듯 이곳을 발견한 것 또한 행복이다.

#용인

생태주의 독립서점

마을의 작은 문화쉼터, 반달서림

아담한 규모의 하얀색 복층 구조가 인상적인 반달서림은 책방지기가 좋아하는 음악과 작은 음악회를 꾸준히 마련하며 마을의 작은 문화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잘 팔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시집을 책방 전면에 진열하는 등 배짱도 두둑하다. 생태주의 독립서점을 표방한 반달서림은 품목이 많진 않지만 친환경 제품들도 구비해 제로웨이스트숍의 모양새도 갖췄다. 그래서 동네서점임에도 사회인문 서적을 많이 들여놨다. 인권 혹은 가족과 관련된 책을 더 많은 사람이 보고 무언가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대표 프로그램은 그간 꾸준히 이어온 시 필사 모임 ‘반달과

5펜스다. 반달서림의 ‘반달’과 일주일에 5번 펜(pen)을

든다는 의미의 ‘5펜스(5pens)’를 더한 네이밍이다.

한 달 주기로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해 매일 한 편씩 선정한 시를 각자 필사한 뒤 사진을 찍어 온라인 카페에 올리는 방식이다. 매주 5편, 한 달에 20편의 시를 필사하게 되며 운영 방침에 맞춰 모두 성공하면 시집을 선물로 받는다. 이 밖에도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산책’, 온오프라인 시 창작회, 생태서적 읽기 모임, 계절 음악회, 악기 클래스 등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22 상가동 201호
- 운 영 화~금 09:00~15:00, 일·월요일 휴무
- 인스타 @bandalseorim
- 문 의 031-286-2390

#시흥

책벌레들의 문화 살롱

내 마음을 만나는 동네서점, 책방내심

‘No books, no life.’ 시흥 책방내심의 계단에 적혀있는 문구다. 이 계단을 오르다 보면 책방지기가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2019년 문을 연 책방내심은 문학과 인문학, 그림책을 주로 다루는 독립서점이다. ‘콘텐츠 공간’으로 압축되는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는 콘텐츠와 공간이 맞닿으며 삶과 죽음, 일상, 일, 관계의 심리로 책 큐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책방내심은 콘텐츠 공간으로서 모임과 전시, 공연을 활발하게 기획하며 공유하는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책방내심의 독서, 드로잉, 영화, 글쓰기 모임이 그렇게 탄생했고, 로컬 창작자들의 작품 전시회와 그림 전시, 음악 공연이 펼쳐졌다. 동네에 숨어 있는 멋진 문화예술가와 그런 문화를 마음으로부터 즐기는 참가자들도 연결시켰다.

독특한 것은 책방지기가 ‘반경 5km’라는 이름으로 멋진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만의 방법과 속도로 일하는 사람들의 서사는 분명 매력적이다. 책방내심이 사람들의 내심(內心)에 주목하는 이유다.

동네 책방에서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이어진다. 책이라는 매력적이고 강력한 자원이 취향이 통하는 사람들을 서점으로 불러 모은다. 서(書)로 소통하며 공유하는 공간, 책방내심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초등길 3 2층
- 운 영 수~토 12:00~20:00, 월·화·일요일 휴무
- 인스타 @naesimbooks
- 문 의 070-8621-8005



28

프리뷰, 하나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
모두의 기회, 모두의 피아노

30

프리뷰, 둘

미디어 콘서트 <디오니소스 로봇>
타악과 전자음향,
인성에 의한 심포니아

32

프리뷰, 셋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세기의 명작 화려한 피아니즘의 진수

34

리뷰, 하나

왕숙천 윤슬처럼 빛났던 예술 무대
<거리로 나온 예술>

36

리뷰, 둘

경기만요가 누군가를 위한 음악이 될 때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시나위 악보가게 IV
<환갑>



STAGE

모두의 기회,
모두의 피아노ON STAGE
포리블 하나

경기아트센터가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피아니스트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수원시음악협회가 함께한다. '모두의 기회, 모두의 피아노'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거장 안드라스 쉬프의 리사이틀부터 피아노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무대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찾아간다.

피아노가
만들어 내는
감동적 화음

먼저 10월 4일 '2023 경기피아노
페스티벌'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무대는
<오프닝 콘서트 : 피아노 오케스트라>

다. 김대진 예술감독을 비롯해 30명의 피아니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쇼팽의 발라드부터 15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5번까지 피아노가 만들어 내는 감동적인 화음이 대극장을 가득 채
울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아서 그린(Arthur Greene), 이진상, 박영성 등 국
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이어 10월 5일 소극장에서는 <My Favorite Sonatine>, <피아노
콜라보의 밤>을 차례로 선보인다. 수원시음악협회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인 및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이 참여하는 <My Favorite
Sonatine>에서는 '소나티네 릴레이 콘서트'가 펼쳐진다. 피아노 입
문자들에게 익숙한 소나티네 연습곡을 연달아 연주하는 무대로,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소중한 무대 경험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피아노 콜라보의 밤>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8인과 영재 피아니스트 2인의 콜라보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국내
클래식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 될 전망이다.

세계적 거장,
안드라스 쉬프
리사이틀

한편 10월 6일, 세계적 거장의 무대
가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
한다. 바로 헝가리 출신 안드라스

쉬프(Andras Schiff)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을 찾는 것. 쉬프의 경기
아트센터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쉬프는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로 불린다.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연주해내기 때문이다. 작품 전체를 조망하면서도 자신의 개성
까지 모두 음악에 담아낸다. 그런 이유로 그는 국내에서도 많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작품을 연주하더라도 믿고 듣는 연주
자로 명불허전 그 자체다.

공연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연주'로도 유명한



지휘자 안두현



피아니스트 신미정·박상욱 신박듀오



지휘자 성기선



예술감독 김대진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



피아니스트 임동민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
모두의 기회,
모두의 피아노



일시 10.4(수)~7(토)
장소 경기아트센터
연락처 031-230-3263~5

쉬프는 이번 리사이틀에서도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의 곡 중 즉흥적인 선택에 따라 연주를 선보인다. 특정
곡목을 미리 발표하고 순서대로 연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일
공연장의 음향 상태, 피아노 컨디션, 관중 숫자 등을 고려해
연주 전 레퍼토리를 확정한다. 놀라움도 공연의 한 요소라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대신 곡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해설과 연주를 동시에 진행
하는 '렉처 콘서트' 형식을 취한다. 연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곡
가와 음악을 친절하게 소개하거나 이 곡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지 직접 건반을 눌러가며 설명할 예정이다. 관객들이 더욱 특별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다.

피아노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지는 축제

축제 마지막인 10월 7일에는 피날
레 무대가 펼쳐진다. 소극장에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두의 콘서트>가

열린다.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모
차르트와 드보르작의 대표곡을 연주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 되는 무대를 펼친다. 대극장에서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신박듀오, 피아니스트 임동민이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는 6일과 7일 이틀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주자들의 피아노 버스킹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누구나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야외 공연으로, 방문객들은 열린 공간
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가 오직 피아노만을 위해 준비한 '2023 경기피아노
페스티벌'. 거장급 연주자의 무대부터 버스킹 무대까지 피아노의
다채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축제의 모든 공연은 경기
아트센터 홈페이지 및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타악과 전자음향, 인성에 의한 심포니아

ON STAGE
프리뷰
볼

<시나위 일렉트로니카>, 뮤지컬 <금악>, <역(劇)의 음향>, <Concert Meditation 반향>까지 장르의 무(無)경계를 통해 한국음악의 무한한 확장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멀티 미디어 음악극으로 탄생한 <디오니소스 로봇>으로 관객과 만난다. 2022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세계 초연된 이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확장판 미디어 콘서트다.

60분으로
확장한
미디어 콘서트 공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미디어 콘서트 <디오니소스 로봇>은 2022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세계 초연된 이후 유럽(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체코-독일-세르비아)에서 10회 이상 공연되며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댄서 毛魚(모어) 모지민, 독일 영상작가 올리버 그림, 러시아 일러스트레이터 다한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6개 프로그램(새벽, 속삭임/ Wake up mirror/ D패/ 추리 추리/ 검은 태양/ 시나위 Bot)에서 3개 프로그램(사냥의 시간/ 심연의 강/ 빛의 말)이 확장된 총 60분의 미디어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명해라, 아리아드네!...
너는 작은 귀를 가졌으며, 너는 내 귀를 갖고 있느니
그 안에 현명한 말 하나를 꽃아 넣으라!...
자기에게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먼저 미워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나는 너의 미로이다...
<니체 - 아리아드네의 탄식 중에서>



인간 내면에 잠재된
수많은
타자들 소환

작품의 제목인 '디오니소스'의 이름은 'Dio-두번', 'Nysos-태어난 자'라는 뜻으로 부활의 의미를 지녔다. 작곡가 원일은 철학자 니체의 '디오니소스론'을 읽다가 물질적 실재가 아닌 연주

자들의 음악적 에너지로 디오니소스의 혼을 무대에서 부활시켜 보고픈 의지로부터 이 작품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작곡가는 "모든 예술가들은 어쩌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 초월하고, 퍼포먼스와 작품을 통해 부활하고자 하는 잠재적 디오니소스 로봇들과 같다는 것에 영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철학자 니체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의지와 힘이 디오니소스 정신으로부터 솟아날 수 있다고 믿었다. 아폴론적인 밝음과 평정, 절도에 대비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명의 깊은 곳에 가닿은 디오니소스적 힘을 통해 그는 시대에 만연한 관습적 도덕의 위선을 깨트릴 희망을 발견했던 것 같다. 이 작품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을 과감한 음향과 음악으로 표현하며 인간 내면에 잠재된 수많은 타자들을 무대 위로 불러내는 제의적 형식의 공연이다.

백남준 선생에 대한
작곡가의
오마주

<디오니소스 로봇>은 환원 불가능한 음악 형식인 '시나위의 미래'를 생각하며 구상됐다. 특히 '시나위적인 삶'을 산 예술가 백남준 선생에 대한 작곡가의 오마주가 담겨 있다. 즉흥과 구성, 해체와 조합, 신명과 영성의 소리집을 짓고 부수며 끊임없이 변신해 가는 인간이자 기계인 디오니소스. 그 정신을 시나위오케스트라는 '타악과 전자음향, 인성에 의한 심포니아'로 풀어낸다. 다양한 타악기들과 한국의 전통악기, 거기에 컴퓨터로 만든 전자음향과 인성의 소리 조합도 주목할 만하다.



예술감독 원일



미디어 콘서트
<디오니소스 로봇>



일시 10.20(금) 19:30, 10.21일(토) 16:00,
10.22(일) 16:00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연락처 031-289-6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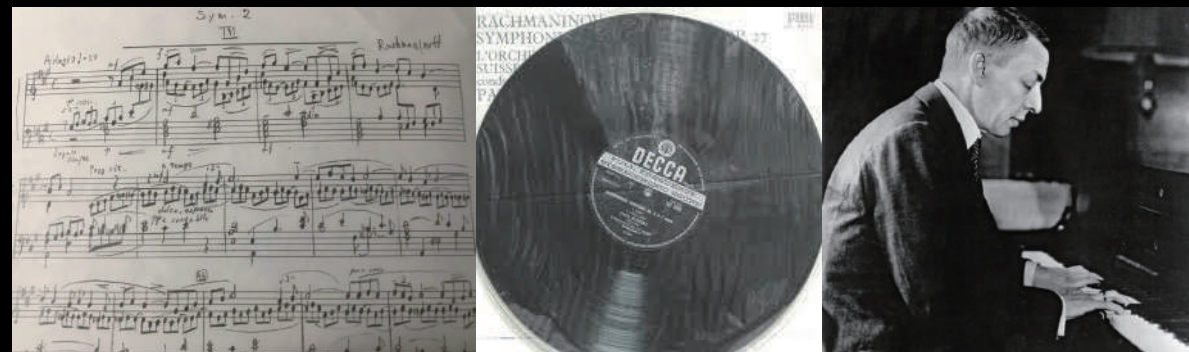
세기의 명작 화려한 피아니즘의 진수

마에스트로 이병욱,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0월 21일, 22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롯데콘서트홀에서 각각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병욱이 경기필하모닉을 객원 지휘한다.

지휘자 이병욱은 국내외 교향악단의 지휘는 물론 오페라와 현대음악에 강점이 있는 지휘자로 음악의 동시대적 해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은 물론 음악가들이 신뢰하는 '마에스트로'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 뉘른베르크 심포니, 체코 Bohuslav Martinu 필하모니 등의 객원 지휘자를 역임한 그는 유럽 정상급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인 OENM(Österreichisches Ensemble für Neue Musik)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했고, 2006년에는 잘츠부르크시에서 주최한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축제의 오프닝 공연을 지휘하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 탁월한 음악적 소통에 능한 그는 교향곡 지휘는 물론 다양한 제작 공연 작품의 음악감독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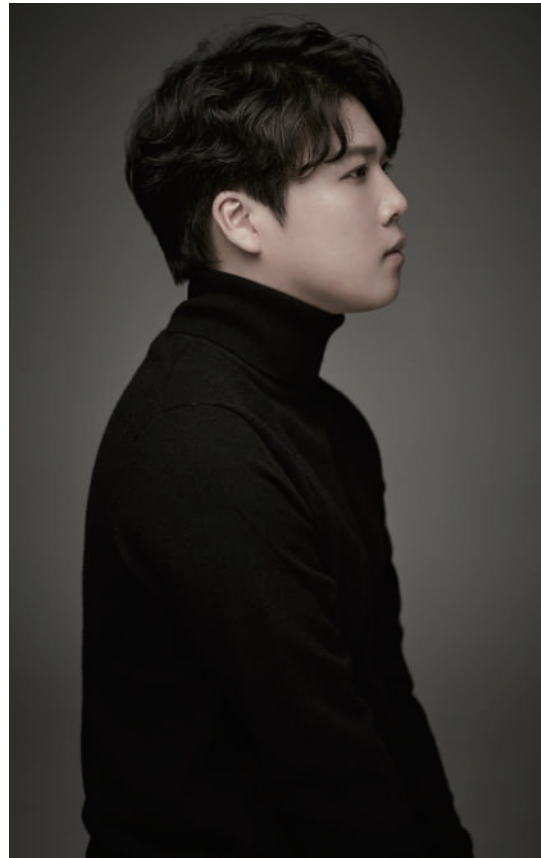


지휘자 이병욱



흑평 이겨내고 탄생한 세기의 명작

세기의 명작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은 그의 교향곡 1번의 실패 후, 우울증에 걸려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이를 극복하고 10년 만에 쓴 작품이다. 행복과 불행, 사랑과 아픔, 절망과 희망 등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특히 3악장은 감미로운 선율과 절묘한 흐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작품으로 러시아 클래식 음악계 최고 영예의 '글린카상'을 두 번째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폭발적인 터치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한다. 피아니스트 박종해는 2010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 2011년 이탈리아 에판시에서 수여하는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상, 2018년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를 수상했다.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피아노 협주곡을 통틀어 가장 난해한 작품이다. 이 곡은 러시아 피아니즘 특유의 큰 스케일과 고난이도 기교가 두드러진다. 또 곡의 지배적인 정서인 우울하면서도 낭만적인 정서를 박종해가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을 모은다.



피아니스트 박종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정열과 우수의 음악가, 라흐마니노프. 올해 그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기념 공연한다. 1907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작곡되어 1908년 초연된 세기의 명작! 도도한 흐름, 광활한 스케일 그리고 긍정적 전망이 관객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교향곡의 진수

이병욱 지휘자는 “올해는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1873~1943)의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나 3번을 많이 즐겨 듣고, 또 연주 회에도 자주 소개되는 편이지만 교향곡 2번은 한 시간이 넘어가는 대곡인 만큼 자주 공연장에서 연주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휘자는 “이번 공연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1악장, 빠른 템포로 몰아붙이다 서정적인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이 반복되는 긴장감 넘치는 2악장, 러시아 낭만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명선율의 3악장, 희망찬 미래를 향해 클라이맥스로 마무리되는 4악장을 감상할 수 있다”며 “차이콥스키 교향곡의 뒤를 잇는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교향곡의 진수를 느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가을을 수놓을 불세출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그의 명곡이 벌써부터 들리는 듯하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일시 10.21(토) 17:00, 10.22(일) 17: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롯데콘서트홀
연락처 031-230-3324

왕숙천 윤슬처럼 빛났던 예술 무대

<거리로 나온 예술>

ON STAGE
리뷰 하나

가을을 수놓은 희락(喜樂), 가락

가을이 오면 '가락'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가을을 수놓은 희락(喜樂)”이라고 말이다.

지난 8월 16일 경기도 남양주의 왕숙천 경
관광장에서는 다채로운 가락을 흠뻑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예술 공
연 <거리로 나온 예술>이 펼쳐졌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의 예술가들에게는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민에게는 '일상에서 예술을
누릴 기회'를 선사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 공연에서는 우리의 전
통 가락으로 구성된 국악과 풍물패 공연 그리고 현대적인 가락을
자랑하는 통기타와 밴드 공연이 이어졌다. 다양한 악기가 가진 섬
세한 가락으로 하나의 웅장한 소리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목관 & 금관 앙상블이 꾸민 2부 공연은, 환상적인 피날레를 선보이
며 <거리로 나온 예술>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전통과 현대가 맞닿은 예술

1부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
는 공연 구성이 인상 깊었다. 창과 너
름새를 통해 우리의 가락을 구성지게

표현하는 국악 공연팀의 무대가 끝나면, 통기타 연주와 라이
브 밴드의 현대적 음률이 경관광장을 가득 메웠다. 전통과 현
대, 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예술 무대가 펼쳐졌다.

주현선국악예술단과 다산전통국악예술단은 '군밤타령'과 '해
주 아리랑' 같은 우리 민요를 열창했는데, 관객들은 장단에 맞
춰 손뼉을 치고, 익숙한 가사를 따라 부르며 무대를 관람했다.
남양주 풍물패 더더쿵 '사가지'는 140년간 남양주시 조안면 삼
봉리에서 명맥을 이어온 '삼봉두레 풍물'을 복원·재연하며 민
족의 혼과 숨결이 담긴 우리의 가락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신명 나는 전통 가락이 흥을 돋운 후에는 현대 음악의
감미로운 멜로디가 가을날의 오후를 낭만으로 수놓았다.

남양주 문화예술사업단과 흥기는, 와이키키 밴드는 '바람아
멈추어다오', '나는 행복한 사람', '호텔 캘리포니아'와 같은 세
월이 담긴 노래를 연주하며 음악으로 떠나는 추억 여행에 관
객들을 초대했다. 음악의 힘은 대단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손
을 잡고 야외무대를 찾은 관객들은 청춘의 한 페이지를 차지
하고 있던 추억의 음악을 함께 들으며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
이었다.

풍성한 선율이 무르익는 가을 저녁

가을의 소슬바람이 불어올 무렵 2부
공연이 시작됐다. 풍성한 선율을 자랑
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

특별한 건 2부 무대를 꾸민 다섯 공연팀 중 두 팀이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오케스트라였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화도 청소
년 오케스트라와 다산 유스 오케스트라는 때론 섬세한 기교
로, 때론 격정적인 연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들
오케스트라에 마음을 빼앗긴 건 비단 어른뿐만이 아니었다.
청소년 단원들이 경쾌한 리듬으로 '동요 메들리'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객석에 앉아있던 어린아이들은 하나, 둘 일어나 엉
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음악 하나로 남녀노소 모두가 함
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 연주도 이어졌다.

금관 악기를 연주한 스피릿 앙상블과 목관 악기를 연주한 제
이 앙상블은 특유의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을 선보이며
선선한 가을 저녁에 온기를 보냈다.

이윽고 마지막을 향해가는 무대. 2부 공연의 마지막 순서를
맡은 남양주 시민 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서곡
(Overture To The Magic Flute)>' 연주를 시작으로 오페라와 재즈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과 호흡했다.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오페라 연주와 자유롭고 감각
적인 재즈의 선율은 관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일상의
고단함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음악에 실어 멀리 날려 보낸 듯,
관객들의 얼굴엔 여유와 웃음만이 가득했다. <거리로 나온
예술>, 그 아름다운 무대가 왕숙천의 윤슬처럼 찬란하게 빛나
고 있었다. <

글 류지영
15년 차 방송작가. 현재 OBS 경인TV '생방송 어서옵쇼' 프로그램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민요가 누군가를 위한 음악이 될 때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시나위 악보가게 IV

<환갑>

<환갑>은 2023년
시나위 악보가게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각각의 단원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의 색깔이 얼마나 다른지
경기민요라는 렌즈를 통해
보여준다.

여전히 꿈 많은 중년, <환갑>은 무대 뒤 큰 스크린을 가득
찬 채운 익명의 사진들로부터 시작된다.

꽤 긴 시간 침묵 속에서 수십 장의 사진
이 스쳐 가지만 지루할 틈은 없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사진
들은 유년 시절부터 결혼 후 가정을 꾸려 자식을 길러내기까지
인간의 평범한 삶을 함축하고 있다. 객석 곳곳에서 크고 작은 웃
음이 번진다. 사진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힘이 있다. 사람
들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는 것만으
로도 충분해진다.

이윽고 시끌벅적한 청춘기가 흘러나오면 의문의 중년 여성들이
한 명씩 무대로 등장해 긴 줄넘기를 시작한다. 그들은 실제로
환갑을 맞이한 평범한 여성들이다. 아슬아슬 줄을 넘는 그들의
모습 뒤로 각자의 소개 영상이 병치 된다. 그들은 세계 여행을
떠나고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 여전히 꿈 많은 중년이다. 무대에
익숙하지 않은 듯 수줍은 중년의 여성들이 돌연 공연의 주인공
으로 등장하면서 관객들도 예측 불가한 모험으로 인도된다.





삶의 무게를 견뎌낸 작은 영웅 이 공연에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자 관객이 있다. 공연으로 초대된 주인공들의 가족이다. 주인공의 아들이자 딸, 남편인 그들은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감사의 인사를 목소리로 전한다. 가족들은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리한다. 쑥스러워 평소에는 하지 못했을 사랑과 진심의 말은 <환갑>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이르러서야 담담하게 흘러나온다. 내밀한 이야기가 무대와 객석을 오가는 가운데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을 것이다.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어렵고 그자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는 나이가 되면, 그제야 부모님의 삶과 노고를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된다. <환갑>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삶의 무게를 견뎌낸 작은 영웅이기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도 잔잔한 감동이 밀려온다.

주인공들을 위한 환갑잔치는 <경기민요 메들리>로 본격화된다. '창부타령', '한오백년', '양산도', '자진방아타령', '뱃노래' 등이 쉴 틈 없이 이어진다. 전통 국악기 편성의 반주에 경기민요 소리꾼인 하지아, 심현경, 박진하, 함영선의 화려한 독창과 합창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가족과 인생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춧돌 위에 경기민요를 '지금의 음악'으로 쌓아 올린다. 경기민요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음악이 되어 관객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경기민요, 공연과 놀이의 경계를 허물다

<환갑>은 극장을 파티장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한다. 빠른 템포의 하우스, 테크노로 편곡된 경기민요를 무대로 소환해 흥을 돋운다. 경기민요만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후렴구를 비틀고 반복적으로 되감으며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관객들은 무대로 초대되고 긴 춤판이 벌어진다. 무대에서 시작되어 객석 끝까지 전달되는 금빛과 은빛의 풍선은 무대와 객석, 공연과 놀이의 경계를 능청스럽게 허문다. 클라이막스로 치달으며 뿔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환갑을 맞이한 주인공들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며 미래로 달려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시나위 악보가게 시리즈는 국악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획된 소품집이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연은 모든 단원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음악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여타 국악관현악단과는 다른 행보다. <환갑>은 2023년 시나위 악보가게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각각의 단원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의 색깔이 얼마나 다른지 경기민요라는 렌즈를 통해 보여준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경기민요를 어느 때보다 가까운 음악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일등 공신이다. ◀

글 **성혜인**
음악평론가. 음악비평동인 '헤테로포니' 필진, 비평지 <오늘의 작곡가
오늘의 작품> 편집위원이다. 한국 전통공연예술 현장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글을 쓰며 기획, 강의, 방송,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괴물의 일상성 기록 보존의 가치

44
이달의 책과 음반
과학적 시의 선 넘기와
사색적 인간의 선 긋기

46
컬처로드
건축, 감성을 빛다

50
예술 알고리즘
예술과 과학의 미세한 교감
광음향 아트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CULTURE ARTZ

괴물의 일상성

기록 보존의 가치

머리에 뿔 난 사람의 모습은 괴물 같은 형체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법한 모습이다. 흔히게는 유럽 문화권에서 악마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 같은 모습을 택했고, 가깝게는 한국에서 요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도깨비 모습을 그리라고 하면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친숙한 도깨비 모습은 일본의 오니?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아는 가장 친숙한 도깨비의 모습은 사실 '오니'라고 하는 일본 괴물 모습을 가져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일본에서 오니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자료를 보면,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 건장한 남성이 몸에 호피 무늬로 된 옷을 두르고 있고, 한 손에는 뾰족뾰족한 것이 달린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모습이 한국의 도깨비가 된 까닭은 20세기에 들어와 한국에서 도깨비 이야기를 다룬 동화의 삽화나 만화 등을 그리려던 사람들이 마땅히 참고할 자료가 부족해 흔히 접할 수 있던 일본의 오니 모습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한국 도깨비의 대표적 인 모습은 일본의 오니 모습을 따라 한 것이 되어 버렸다.



도리아마 세키엔의 『금석화도속백귀』의 오니 © wikipedia



ART N CULTURE 예술이 만나다 인문학

중종이 만들어낸 환상, 양각귀

그렇다면 한국 괴물 중에는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 형태를 한 것은 아예 없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에도 뿔 달린 사람이 강하고 무서운 괴물 역할을 한다는 심상은 오래전부터 퍼져 있었던 것 같다.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 1515년 음력 5월 16일, 기록을 보면 궁중에서 '억천'이라는 이름의 노비를 잡아 조사한 내용을 다루면서 양각귀(兩角鬼), 즉 뿔 둘 달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억천이 자기가 꾸 꿈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소한 이유로 붙잡혀 무거운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 “늙은이들이 궁궐 건물의 창호를 난타했다”, “폐주가 양각귀를 이끌고 나타나 궁궐 담을 넘어 중궁이 있는 곳을 묻고 사람들을 때리고 다녔다” 등의 꿈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건이 기록된 문헌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점과 기록 시점을 따져서 사건의 배경을 짐작해보면 억천의 꿈이 무슨 의미였기에 그렇게 큰 죄로 취급되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1515년 시점은 중종 임금의 두 번째 부인인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시기이다. 그러니까 꿈에서 본 장면은 늙은이들과 폐주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장경왕후를 찾아왔고 공격해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말이다. 여기서 폐주는 중종이 임금이 되면서 쫓겨난 이전 임금, 연산군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연산군이 지옥에서 돌아와 뿔 둘 달린 귀신과 자신의 옛 부하들인 노인들을 이끌고 궁궐을 공격해 임금 자리를 빼앗긴 원한을 갚으려고 했다는 의미다. 억천이 이런 꿈을 꾸고 이야기하고 다닌 이유는, 아무리 연산군이 폭군이였다고는 하지만 임금을 쫓아낸 사건에 대한 충격과 그 결과 임금이 된 중종 또한 비슷한 일을 겪어 하루아침에 망하면 어쩌냐,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비록 꿈이었을 뿐이라고 해도 중종은 무겁게 다스리도록 했다.



슈텐도지 © wikipedia

뿔 달린 괴물은 수호신이었다!

보다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었던 뿔 달린 괴물 이야기도 있다. 조선에서는 문배 풍속이라고 해서 새해가 되면 집 대문에다가 그림을 붙여 놓고 액운이 들지 못하기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말하자면 전염병이나 흉한 일을 일으키는 귀신이 집에 들어오고 할 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수호신 같은 그림이 문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를 바랐다는 뜻이다.

조선 전기의 서적인 《용재총화》에는 이때 닭, 호랑이, 처용 등의 그림을 붙였다고 되어 있고, 중국 고전에 나오는 수호신인 종구 그림을 붙이기도 했다고 하며, 복두관인(모자를 쓴 벼슬아치) 또는 개주장군(투구를 쓴 장군), 혹은 경진보부인(보물을 들고 있는 부인)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전한다. 조선 시대 사람들이 악한 것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수호신의 형상으로 어떤 모습을 떠올렸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다.

책에서는 이에 더해 각귀(角鬼), 즉 뿔 달린 귀신 그림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뿔 달린 괴물이 때에 따라서는 선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배 풍속은 《성소부부고》 같은 조선 중기의 자료, 《동국세시기》 같은 조선 후기의 자료에도 계속 해서 등장하므로 이런 풍습은 조선 시대 내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널리 유행했을 것이다.



문배도가 걸린 광화문 © 해외문화홍보원



사소한 전통의 기록, 좀 더 신경 써야

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해 전염병으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을 때, 경북공관리소에서는 새해를 맞아 조선 시대의 문배 풍습을 되살려 광화문에 수호신 그림을 붙여 놓고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자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조선 시대 말기까지도 집집마다 붙였던 그 많은 문배 그림 중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결국 유일하게 현재 전체가 남아 있는 단 하나의 문배 그림이라고 하는 경상북도 안동의 풍산류씨 하회마을 화경당 본가 수습유물 자료를 겨우 활용 해서 광화문에 문배 그림을 붙일 수 있었다.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복두관인, 경진보부인, 각귀 같은 다채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겨우 남아 있던 장군 형태의 그림 한 쌍을 활용할 수 있었을 뿐이다.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요즘은 언론 보도들로부터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고려 시대나 삼국 시대의 기록에 비해서는 조선의 기록이 압도적으로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세세한 분야의 자료들을 찾다 보다 보면, 이웃 나라들이나 유럽 각국에 비해 기록이 그다지 넉넉하다는 느낌은 자주 들지 않는다. 특히 국가 기록으로 신성하게 보존한 《조선왕조실록》 같은 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과는 달리 민간 분야의 자료, 그림 자료, 놀이 문화 관련 자료 등은 매우 부족하다. 필자는 이것이 엄숙하게 관리하는 몇몇 자료 외에 일상적인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무시했고, 그 보존과 활용 및 공유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일본의 오니 모습은 긴 세월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그림 자료가 남아 있지만, 조선의 뿔 달린 귀신 모습은 집집마다 문에 붙이던 그림 자료조차 모두 사라진 것 아닐까?

사소한 전통의 풍부한 기록은 결국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음 세대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현대에도 여전히 주변의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1950년대, 1960년대에 인기를 끈 어린이 만화 자료 중에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많지 않으며, 전 국민에게 인기를 끌었던 <여로>나 <전설의 고향> 같은 1970년대, 1980년대 TV드라마의 영상 자료는 충격적이게도 그 대부분이 방송국에서도 사라져 남아 있지 않다. 다음 세대에 또다시 도깨비 그림이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이웃 나라 자료를 빌려 사용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조금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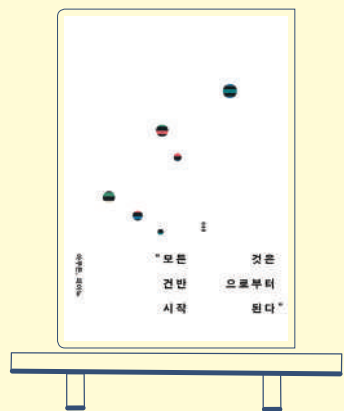
광화문 금갑장군 문배도

글 공학박사이자 SF 소설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과학적 상상력과 방대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의 세균 박람회》, 《한국 괴물 백과》, 《지구는 켄창아, 우리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 등 다수의 논픽션을 집필했다.

곽재식

과학적 AI의 선 넘기와 사색적 인간의 선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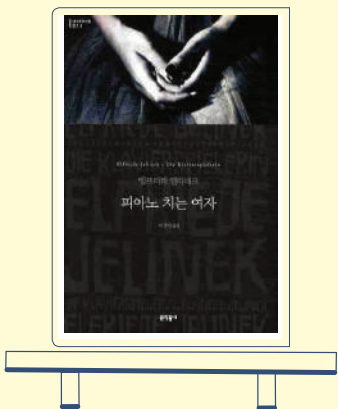
ART N CULTURE 이집의 책과 음반



아무튼, 피아노

저자 김겨울 | 출판 제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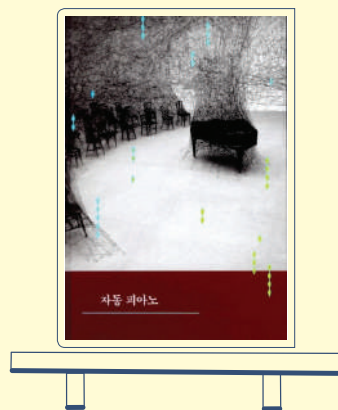
피아노 건반 위로 흐르는 생의 아이러니! 작가 김겨울의 에세이 《아무튼, 피아노》는 부제 ‘모든 것은 건반으로부터 시작된다’처럼 피아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이면에 드리운 복잡다단한 감정에 집중한다. 다섯 살 때 처음 배운 피아노가 지금까지 작가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책 전반에 걸쳐 나오지만, 그렇다고 이야기는 일상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나는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세계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라는 작가의 고백이 뇌리를 스치며 가슴을 두드린다.



피아노 치는 여자

저자 엘프리데 엘리네크 | 번역 이병애 | 출판 문학동네

200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엘프리데 엘리네크의 대표작 《피아노 치는 여자》는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다. 주인공 에리카 코후트처럼 엘리네크도 어린 시절 자신을 탁월한 피아니스트로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켰던 어머니를 증오했고, 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으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도 음악가의 길을 가지 않고 독문학과 연극을 공부했다고 고백한다. 엘리네크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동정 혹은 서글픔 같은 감정은 완전히 배제된, 섬뜩할 만큼 냉정한 시선으로 그려낸다.



자동 피아노

저자 천희란 | 출판 창비

젊은작가상을 받으며 오늘의 한국문학을 이끌어가는 젊은 작가 중 하나로 인정받은 천희란의 소설 《자동 피아노》. 자기 자신에 갇힌 인물의 끝없이 분열하는 목소리가 죽음을 음악처럼 연주하는 작품으로, 죽음에 대한 욕망과 충동, 이에 맞서는 삶에 대한 열망을 집요하게 그려낸다. 죽음에 대한 깊은 사유와 조각한 듯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장이 돋보인다. 스물한 개의 각 장 제목은 저자가 즉흥적으로 떠올린 피아노곡으로 이뤄져 있으며, 작품에 대한 해석은 독자를 향해 자유롭게 열려 있다.



라흐마니노프

<The Art of Sergey Rachmaninov>

<The Art of Sergey Rachmaninov>는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작품을 직접 건반을 두드려 실연한 연주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바로 6개의 CD에 1919년에서 1942년까지 그가 연주자로서 실연(實演)한 레코딩이기 때문이다. 유진 올만디와 레오폴드 스토크프스키가 지휘하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전작’은 자신의 협주곡을 ‘피아노 교향곡’이라고 부른 그의 중량감을 확인할 수 있는 앨범이다.

지난 6월 폴 매카트니가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비틀스의 마지막 음반을 올해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어디 이뿐인가? AI로 복원된 가수의 노래에서부터 AI가 만든 노래, 소름(?) 끼치는 AI 커버곡 등까지 첨단과학이 만들어 낸 예술은 하루가 다르게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 인간이 만들어 내는 사색적 감동과 여운은 듣는 이에게 편안함과 평온함을 선사한다. 과학의 선 넘기와 인간의 선긋기, 청중은 과연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



이루마 <논엘라 피네>

세계적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2년 만에 새 앨범 <논엘라 피네(non è la fine)>를 발표했다. <논엘라 피네>는 ‘끝이 없다’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끝이 아닌 끝’을 담아보고 싶다는 영감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마치 미완성된 음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듣는 이의 감정과 사연이 채워질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음악을 담았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앨범에는 동명의 곡 ‘논엘라 피네(non è la fine)’는 물론 첼로와 피아노 듀오 곡이자 타이틀곡인 ‘라비앙 카 프리마베라(la bianca primavera)’ 등이 수록됐다.



비틀즈 <지금 그리고 그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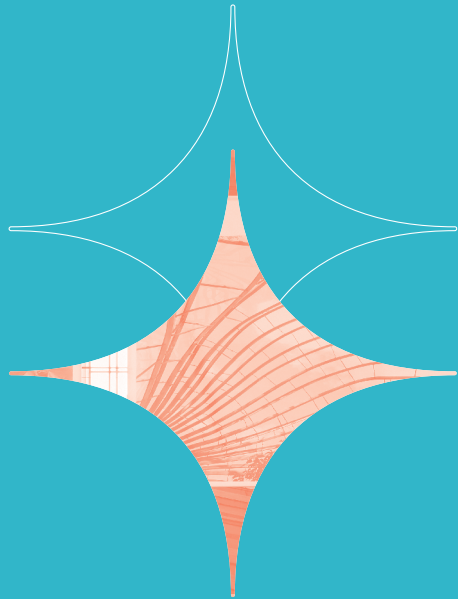
폴 매카트니가 AI의 도움으로 ‘비틀스의 마지막 음반’을 제작한다. 1970년 해산 이후 마침내 AI의 도움으로 재결성이 되는 셈이다. 매카트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AI로 존 레논의 목소리를 ‘추출’해 노래를 완성했다”며 “이제 막 작업을 마쳤고 올해 발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래의 제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레논이 1978년 작곡한 ‘지금 그리고 그때(Now And Then)’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틀스가 1995년 그들의 커리어를 아우르는 선집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재결합’ 곡으로 고려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 감성을 빛다



ART N CULTURE 컬처로드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토마스 헤더윅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인 '헤더윅 스튜디오: 감성을 빛다'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이번 전시는 건축의 지속가능성과 그 의미에 대해 연구해온 '영국의 다빈치' 헤더윅의 지난 30여 년간 프로젝트를 숨 프로젝트가 도쿄 모리 미술관과 함께 기획한 것이다.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헤더윅 스튜디오: 감성을 빛다' 전시 © 숨프로젝트



헤더윅 스튜디오의 감성 건축

우리의 주거 환경은 우리의 삶과 감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건물은 일상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디자인, 구조, 재료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형성하거나 자극한다. 특정한 공간에서의 빛과 그림자의 조합, 색상의 선택, 재료의 사용은 우리가 그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을 크게 좌우한다.

최근 서울의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렸던 '헤더윅 스튜디오: 감성을 빛다' 전시는 건축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감정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전시였다. 일반적으로 건축이란 견고함, 화색, 도시, 차가움과 같은 단어들을 연상시키지만, 헤더윅 스튜디오는 그와 반대로 건축물을 감성의 표현 매체로서 강조했다. 이것은 건축물이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자 감정을 담는 매체로서 역할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주거 환경은 우리의 삶과 감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건축은 그것을 빛내는 예술이자 인간 감정을 다루는 매력적인 매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번 전시는 건축의 예술적 가치와 감성적 영향력을 더 깊이 이해한 기획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욕 허드슨강 부두의 오래된 나무 말뚝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한 인공 섬 '리틀 아일랜드(Little Island)' © Timothy Schenck

건축의 감성, 현대 건축의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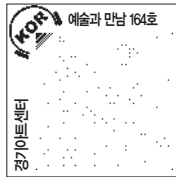
건물은 종종 일상에서 무심하게 지나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감정과 활동을 담는 특별한 공간이다. 헤더윅 스튜디오는 건물을 예술 작품으로 간주하며, 그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건물은 주변 풍경과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내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우리는 많은 순간을 건물에서 보내며 일상을 형성한다. 건축물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이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한다. 2021년 문을 연 뉴욕 허드슨 강변의 리틀 아일랜드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예술 작품과 퍼포먼스를 통해 창의적인 영감을 제공하며 도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이러한 공간은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촉진하며 도시 경제에도 기여한다. 이것은 건축물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건축은 단순한 공간의 틀을 넘어, 감성과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 헤더윅 스튜디오와 같은 건축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과 창의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과 예술적 비전은 미래의 건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케이프타운 자이츠 현대미술관. 아트리움으로 변모한 곡물 저장고의 깎여 나간 단면 © Iwan Baan



미래의 건축에 대한 새로운 기대

우리의 사회는 환경의 변화와 함께 더욱 다채롭고 감동적인 건축물을 기대한다. 헤더웍 스튜디오의 접근 방식은 건물이 단순히 기능과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건축물은 우리의 주거 공간이나 일터에서 매일의 삶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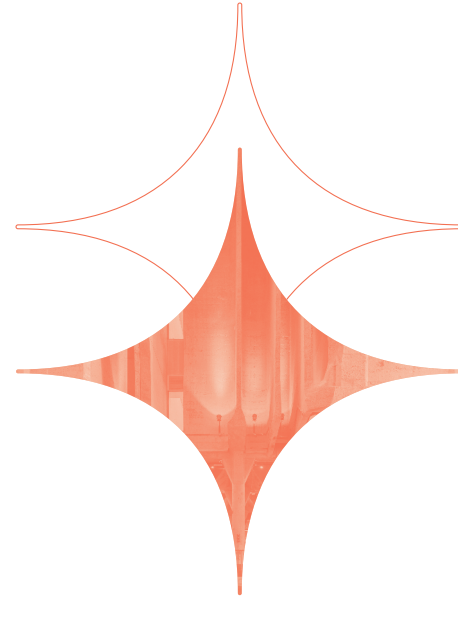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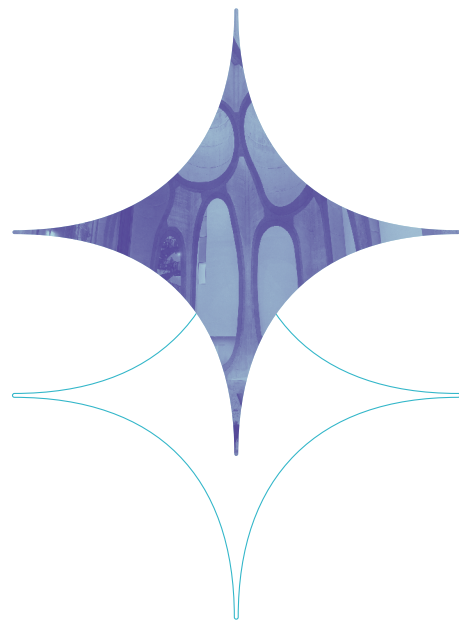
토마스 헤더웍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건축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질문하는 것 같다. 건물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안에서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인 연결은 건물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또한 건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이러한 영향을 고려해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건축가는 창의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방식으로 건물을 디자인하고, 공공 공간과 개인 공간에서 감성을 자극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의 건축은 단순히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감성과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헤더웍 스튜디오와 같은 건축가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기대되는 이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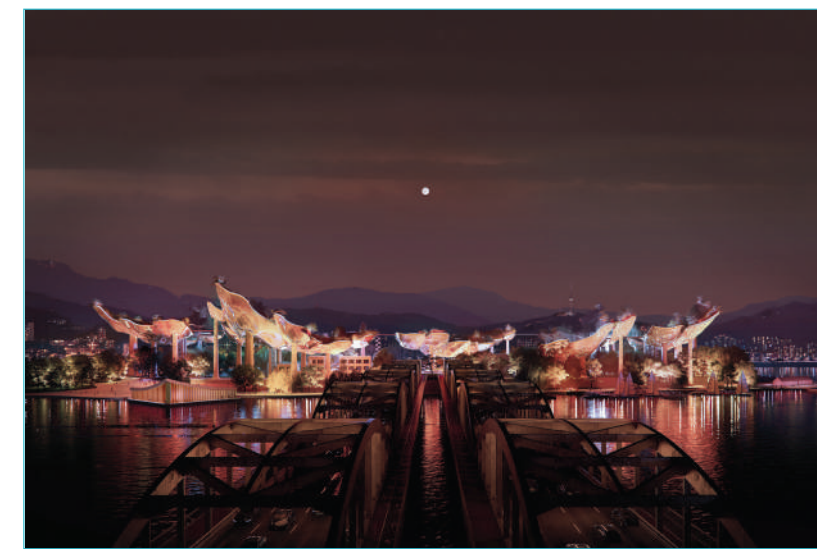
휴머니즈, 인간적인 건축

헤더웍 스튜디오는 건물이 오래된 것에 혼이 깃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은 오래된 도시의 일부를 보존하고, 이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물은 인간다움과 감성을 형상화하고 표현하는 예술의 매체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철학을 대표하는 프로젝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자이츠 현대미술관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때 곡물 저장고로 사용된 건물을 아프리카 최초의 국제적인 아프리카 현대미술박물관으로 변환한 것이다. 헤더웍 스튜디오는 건물의 산업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콘크리트 원통 구조물을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켰다.

헤더웍 스튜디오의 프로젝트들은 감성을 건물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여기며, 건물은 내부와 외부, 양쪽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 내부 사용자는 수가 적지만, 외부에서 건물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외관 이미지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며, 건물의 감성적인 외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헤더웍 스튜디오의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노들섬 디자인에서도 엿볼 수 있다. 헤더웍 스튜디오는 한강의 대형 인공섬을 한국의 음악이 어우러진 활기찬 공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헤더웍 스튜디오의 '소리풍경, 노들섬'은 마치 소리의 파장을 연상시키는 듯한 물결치는 모습을 띠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따라 형성된 산에게 화답하는 듯한 형상이다. 이 형상은 마치 산, 물 그리고 섬이 한데 어우러진 듯한 시적인 구도를 연출한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음악이 흐르는 산책로를 거닐며 색다른 시점으로 도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미래의 건축은 단순히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감성과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소리풍경, 노들섬 © 헤더웍 스튜디오

글 ————— 유시진

프랑스 문화부 산하기관 국립미술사연구원, 파리 일본문화원 등에서 전시 기획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고, 현재 숭례로에서 전시 기획 및 아트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예술과 과학의 미세한 교감

광음향 아트

광음향으로 촬영한 쥐의 혈관을 꽃나무로, 쥐의 동공을 예술작품 형식으로 만드는 등 광음향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화제다. 여기에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픽토리얼리즘’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예술과 과학의 미묘한 교감이라는 콜라보로 관객을 유혹하고 있다.



Art N Culture 예술 알고리즘

예술과 과학의 융합, 픽토리얼리즘

광음향 의료영상은 빛과 소리를 이용해 인체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기술이다.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가끔 번개가 치곤한다. 번개 이후 항상 천둥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현상이 빛이 소리로 변환되는 광음향 현상이다.

의료영상의 경우 레이저를 인체에 조사하면 신체 내에서 소리가 발생하며 전파가 되는데 이를 기존 초음파 의료영상 장비로 획득해 영상화시키는 기법이다. 이 기술은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기존의 의료영상 기술보다 높은 해상도와 정밀도를 제공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신체 내 혈관을 조영제라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도 선명히 영상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술과 과학의 미세한 교감, 광음향 아트(Photoacoustic Art)는 그렇게 시작된 과학적 물음과 예술적 대답의 콜라보다. 필자가 예술과 과학을 본격적으로 융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년 김형기 작가를 만나고, 에코라크 갤러리에서 개최된 '제2회 경계해체전'에 참여하고부터다. 경계해체전은 예술의 장르적인 한계를 허물고,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추구하며, 사진(우리의 경우는 광음향 의료영상)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회화주의 사진기법인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제공한 전시회다.

예술과 과학의 미세한 교감,
광음향 아트(Photoacoustic Art)는
그렇게 시작된 과학적 물음과
예술적 대답의 콜라보다.
광음향 의료영상은 빛과 소리를
이용해 인체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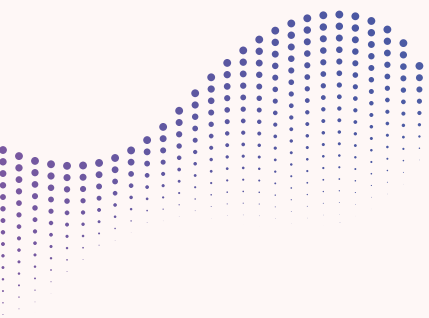
광음향 의료영상은 빛과 소리를 이용해 인체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기술이다.



<벚꽃(Cherry blossom)>
107.0cm×43.0cm
Original image from POSTECH Creative IT Engineering Department
(Chulhong Kim and Seungwan Jeon), 2018

예술, 차세대 광음향 기술을 만나다

픽토리얼리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독특한 사진기법으로 사진의 기록성을 배제하고, 회화적 기법을 사진에 차용한 것으로 촬영 또는 인화과정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그림과 같은 사진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즉, 회화주의를 표방한 예술사진으로 일 년에 한 번 살롱이라는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공모, 심사하기 때문에 일명 '살롱사진'이라고 불린다. 또한 사진 위에 그림을 덧그리거나 사진을 추가로 오려 붙여 다시 인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다음은 차세대 광음향 의료영상 기술을 연구하고, 임상에 적용하며 창업을 통해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이다.



광음향
의료영상 기술로
승화된 작품들

작품 <벚꽃(Cherry blossom)>은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에서 얻어낸 쥐의 귀 혈관을 광음향 영상장치로 제곱받아 김형기 작가가 꽃잎을 추가하며 탄생한 예술이다. 벚꽃 잎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듯한 화사한 봄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첨단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이야기와 작품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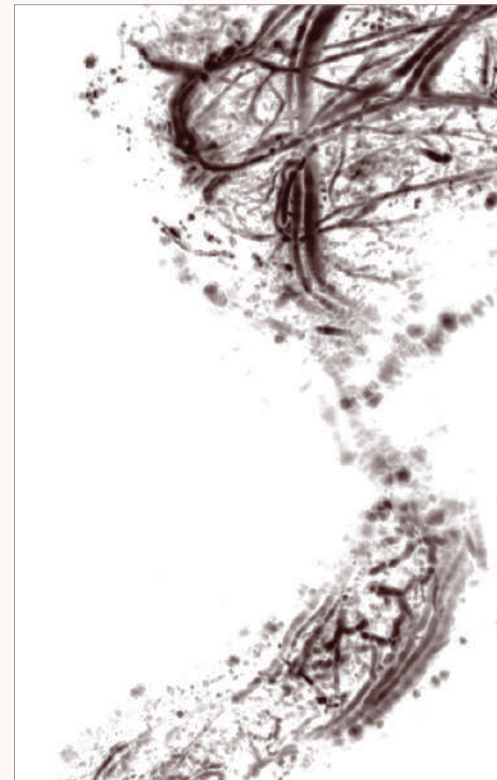
작품 <일식(Eclipse)>은 쥐가 마취되면서 동공이 열릴 때 혈관들이 주위로 물리는 현상을 광음향 영상기기로 획득하고, 역시 김형기 작가의 예술적 터치가 가미되면서 작품으로 승화됐다. 일식이 일어날 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중첩되는 현상이 보이며, 투박한 터치감이 일식이 일어나는 밤의 으스스함을 느끼게 해준다.

쥐의 다리 혈관을 광음향 영상장치로 획득한 후 수묵화 기법으로 변환한 작품 <수묵화(Ink Wash Painting)>도 인상적이다. 2015년 '세계 빛의 해'를 기념해 한국광학회에서 개최한 'Light Image Contest'에서 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광음향 단층촬영(Micro Photoacoustics INC, NY, USA)을 이용해 영상으로 제작했다. 관련 수상 내용은 전 세계 최신 과학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정보포털 '유레카 얼러트(EurekaAlert)' 웹사이트에 소개될 정도로 당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일식(Eclipse 10hours)> 50.0cm*50.0cm
Mixed Media on Original image from POSTECH, 2018

작품 <일식(Eclipse)>은 쥐가 마취되면서 동공이 열릴 때 혈관들이 주위로 물리는 현상을 광음향 영상기기로 획득하고, 역시 김형기 작가의 예술적 터치가 가미되면서 작품으로 승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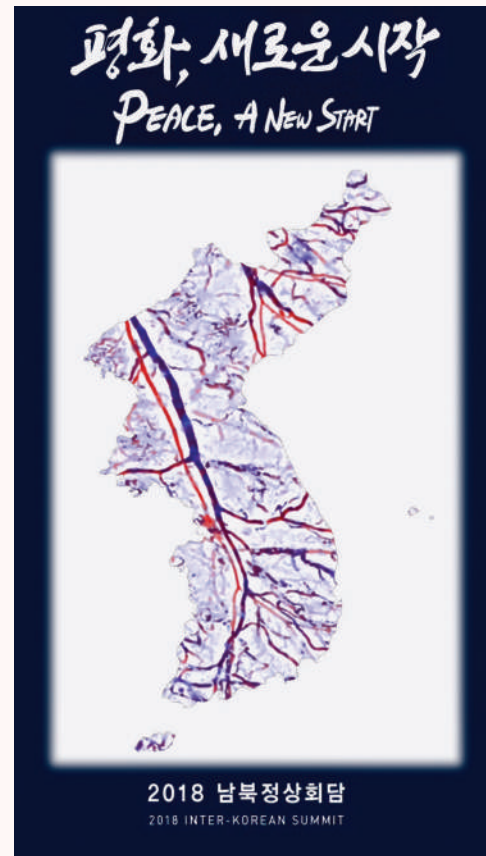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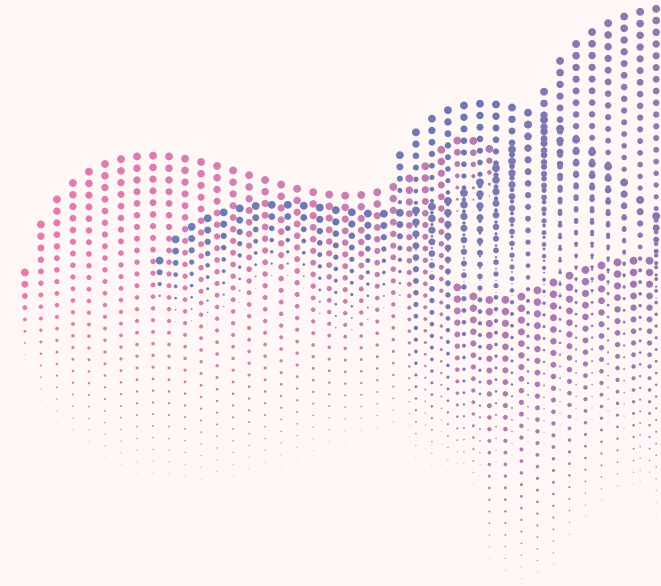
<수묵화(Ink Wash Painting)>, 2015

새로운 예술 작품의
탄생 예고,
광음향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한 작품 <평화, 새로운 시작>(PEACE, A NEW START)은 과학

과 예술이 만나 묵직한 메시지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역시 쥐의 혈관을 광음향 영상장치로 획득한 후 동맥(붉은색)과 정맥(푸른색)으로 각각 구분해 이미지화했다. 작품에서 보이는 실제 동맥과 정맥은 서로 평행하게 흘러가고, 이는 마치 끝이 없는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하다. 하지만 끝단으로 가게 되면 동맥은 모세혈관이 되고, 다시 정맥으로 변하게 되듯이 우리 한민족 역시 언젠가는 하나가 되길 기원하는 소망을 과학의 논리적 사고와 예술의 감성적 바람을 한 작품에 담은 예술이다.

향후 광음향 영상기술이 더욱 발전해 다양한 신체 내 구조를 측정한다면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2차원이 아닌 3차원 미디어 영상을 이용한다면 새로운 미디어 예술이 창작될 수 있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 개척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 한가운데 광음향 의료영상 기술이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무적이다. ▶



<평화, 새로운 시작>(PEACE, A NEW START)>, 2018

글 김철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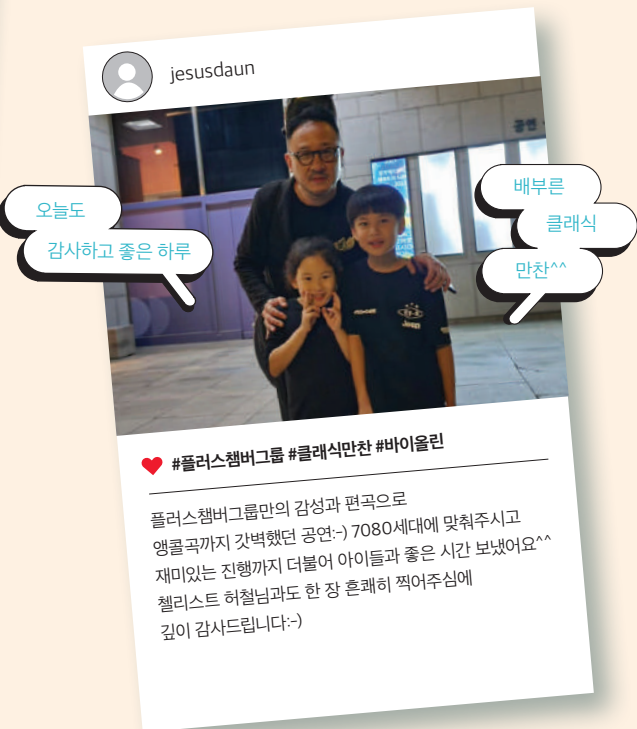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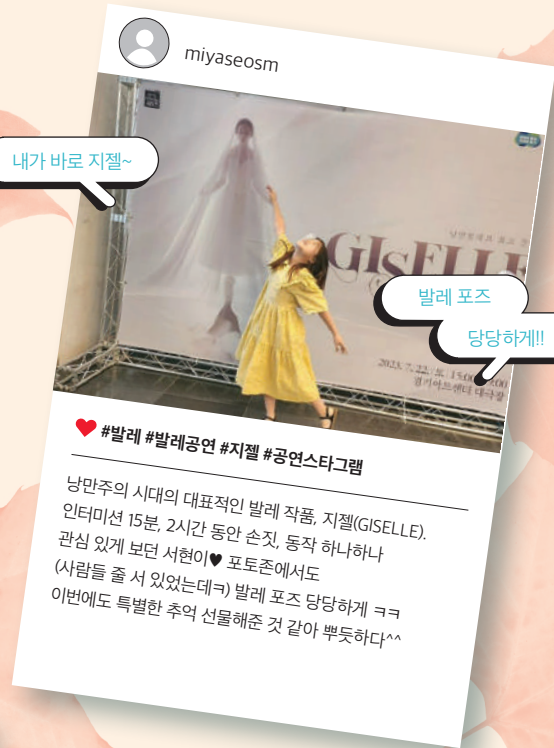
차세대 광음향 의료영상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임상에 적용하고 창업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텍 IT융합공학과 주임교수·의과학 전공 주무교수, 포스텍 남고석자교수·차세대리더교수·무은재석좌교수, 포스텍 의료기기혁신센터장(교육부 지정 대학중점연구소), 주식회사 옵티코(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이사, 국제광전자학회(SPIE) 및 미국광학회(Optica) 석학회원이다.

BIMONTHLY FEED

#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국악, 발레, 클래식,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골라보는 재미와 깊고 울림 큰 감동과 여운까지 경기아트센터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다양한 예술작품에 관객들은 떨리는 전율과 충만한 환희로 보답했습니다. 행복은 먼 데가 아닌 가까운 곳에 있음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객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로 담아왔습니다.

Art N Culture #공감테크



GGAC GIFT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를 <예술과만남>과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문화예술 #공연 등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GGAC
레퍼토리시즌
2023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IX

GGAC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이병욱 피아노 박종해 연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16
S. Prokofiev Piano Concerto No.2 in g minor, Op.16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e단조, 작품27
S. Rachmaninoff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2023.10. 21토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2일 17:00 롯데콘서트홀

티켓 수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서울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관람연령 7세 이상 예매 수원 1544-2344 서울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문의 031-230-3324~5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58

GGAC VLOG

수준 높은 관객 경험을 위해

60

담당자의 노트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세계 장애 무용계 화합과 연대의 장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64

CALENDER

10-11월 주요 공연 일정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GGAC STORY



수준 높은 관객 경험을 위해

: 하우스매니저&하우스어써 VLOG

GGAC STORY GGAC VLOG



수준 높은
관람 서비스를 위한
경기아트센터의
노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협의, 공연장 점검, 안내원 교육, 관객 응대 등 일당백을 담당하는 객석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에서는 2004년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출범 때부터 하우스매니저를 도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진혜정 하우스매니저와 함께 하우스매니저의 일상을 살펴보자.



#1

공연장의 객석과 로비 등을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하우스어써란 이 하우스에 들어오신 관객분들을 안내하고 응대하며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어써를 이끌고 관리해 관객께 보다 수준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자를 하우스매니저라고 합니다.



#2

하우스매니저의 업무는 공연 협의부터 시작합니다. 공연 주최자와 공연 진행에 관해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공연 당일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 및 사전에 조율해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혹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는 관람객분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의 업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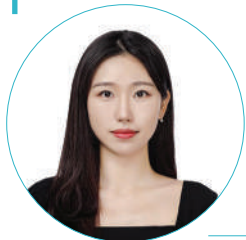


#4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하우스매니저의 책임입니다. 특히 안전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이기에,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담당자에게 즉각 대응을 요청합니다.

관객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관람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진 촬영 가능 시간, 입장 가능 연령 등 꼼꼼히 확인합니다.



진혜정 - 경기아트센터 하우스매니저

학부는 공학, 대학원은 경영학을 공부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늘 변화하는 공연장에 매력을 느꼈고, 매일 새로운 관객분들을 만나는 일이 즐겁습니다. 경기아트센터로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은 물론 함께 일하는 하우스어써들도 행복한 기억만 남길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3

공연 시간 1시간 15분 전에는 미팅을 진행합니다. 관객 응대를 위해서는 공연장의 특성과 당일 공연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에, 관련 내용을 하우스어써들과 공유하는 거죠. 평소 하우스매니저는 하우스어써의 인사 및 교육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5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하우스를 오픈해 관객분들을 맞이합니다. 하우스 오픈은 보통 공연 시작 30분 전인데요. 공연 시작 전까지 관객들의 원활한 입장을 도우며 시각에 맞춰 공연이 잘 시작되도록 합니다.



#6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객이 두고 가신 물품이 있는지 분실물을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하우스어써와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아트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세계 장애 무용계 화합과 연대의 장

경기도무용단 기획자의 노트



2023년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가 지난 8월 15일 개막해 9일 동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이음센터 이음아트홀, 서울관광재단 등에서 전 세계 8개국을 대표하는 180여 명의 예술가와 자원봉사자, 스태프가 함께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외 무용제로 진행됐다. 아파하는 것에 마음을 더하고, 소외되는 것에 아픔을 더한 뜻깊은 화합과 연대의 무대였다.

개막작 <메타프리즘> 협업작품 선정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orea International Accessible Dance Festival, KIADA)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국제무용제로 장애인 무용예술가 및 공연예술가 간의 협업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 기획됐다.

제8회를 맞이해 올해 처음 시도된 국내 기획작으로 국공립무용단과 장애인무용수들의 협업작품을 개막작품으로 프로그래밍했고, 그 협업대상으로 경기도무용단이 함께했다. 경기도무용단은 단원창작작품으로 최은아 단원이 안무한 <메타프리즘>을 협업작품으로 선정했고, 함께 할 장애인무용수들의 선발 오디션 심사를 진행했다. 각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인 4명, 지체장애인 3명, 뇌병변장애 5명 등 총 12명이 신청했고,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2명, 지체장애인 1명, 뇌병변 장애인 1명을 선발했다.

비장애인들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동작을 외우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동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 몸에 완전히 동작이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무용수들의 몸을 직접 만져 보면서 동작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은 연습을 영상으로 담아 연습이 끝나고 귀가 후에도 계속 영상을 보면서 반복 연습을 했다. 이들은 모두 작품의 구성원으로서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용수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움직임을 반복하며 연습을 진행했다.



모두를 위한 공연, 배리어프리 확산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기획자로서 다양한 방법의 감각으로 공연예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음성해설, 터치투어 등 다양한 기술과 감각을 이용해 공연예술을 접할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해외에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 단계 나아가 단순히 윤리적 의무로 인한 배리어프리 시행을 넘어 창작자와 기획자가 작품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고려해 더 많은 이들이 공연예술을 보고, 느끼며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

노력과 섬세함이 더해진 깊고 진한 감동

단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장애인무용수들에게 동작을 가르쳐 줬다. 그저 적당히 따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명의 장애인무용수들이 작품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고,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범을 보이며 솔선수범했다. 장애인들과 작품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 내심 걱정했던 장애인무용수들의 보호자들도 진심을 다해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는 모습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장애인무용수들의 노력과 단원들의 섬세함이 더해져 시간이 갈수록 처음 걱정과는 다르게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져 빨리 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싶을 정도였다. 공연 당일 무대 막이 오르는 순간 긴장, 초조함, 설렘이 공존했고, 누군가에게는 춤이 이렇게도 절실하기도, 즐거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습을 진행하면서 장애인무용수들과 함께 다닐 때, 그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혼자서도 잘해요”였다.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무용을 배우며,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 재활활동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연습자체를 즐기는 장애인무용수들은 공연일이 다가올수록 연습이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연습하는 그 순간들을 오롯이 즐기고 춤을 사랑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았다.



글 한지원
(경기도무용단 주임 PD)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무용기획을 시작했다. 다양한 무용장르와 축제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경기도무용단 기획실 업무를 맡고 있다.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경기아트센터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그리고
경기도예술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www.ggac.or.kr

10+11
2023 VOL.164

경기필 상임지휘자 김선욱 선임 연중 10회 경기필 지휘

경기아트센터는 피아니스트 김선욱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 겸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예술감독의 정식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년이다. 김선욱 선임 상임지휘자는 내년 1월 경기도예술단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연중 10회 경기필을 지휘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지휘자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선욱은 2006년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으며,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과에 입학해 콜린 메터스(Colin Metters)의 지도를 받았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부산시향, 대전시향 등 국내 우수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영국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페인 마드리드 엑셀렌티아 재단, 마카오 오케스트라 등과 호흡을 맞추며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해 가고 있다. 또한 대만 국립 교향악단,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 제오르제 에네스쿠 필하모닉, 폴란드 슬라스카 필하모니아, 본머스 심포니 등을 객원 지휘할 예정이다.



경기도극단 소리책 제작 인간사회 의인화해 비판한 《금수회의록》 선정

경기도극단이 '2023년 경기도예술단 예술즐거찾기' 사업 일환으로 소리책 《금수회의록》을 제작했다. 경기도극단 '소리책'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소통,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제작과 대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13년 이시원 작가의 희곡집 《녹차정원》 도서를 시작으로, 2014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맥베스》와 《리어왕》, 2015년 《로미오와 줄리엣》, 2016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2017년 《햄릿》, 2018년 《이웃집 발명가》와 《이웃집발명가 두 번째 이야기》, 2019년 《글 수 없는 불꽃》, 2020년 《이웃집 발명가 희곡집》 중 2편 <판다바이러스>, <거기에 있는 남자> 등을 만들어 전국 118개소 시각장애인도서관 및 기관에 전달해 도서(음반) 대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는 1908년 출간되어 이듬해 일제에 의해 판매금지된 최초의 금서 《금수회의록》을 선정·제작했다. 인간사회를 동물과 곤충 등으로 의인화해 비판한 우화소설로 극단 배우들의 감성으로 연극적 재미를 더했다.



경기도무용단 한-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공연 우리 전통문화 우수성 알리는 계기

경기도무용단이 2023년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공연>에 참여했다. 이번 공연은 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초청으로 9월 19일 KKL의 Luzerner Sall에서 열렸다. 루체른은 '루체른 카니발', '루체른 페스티벌'을 포함해 연중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세계 각국의 클래식 애호가들이 모이는 도시다. KKL은 이러한 루체른의 문화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한 공연장이다. 음악 도시 루체른에서 공연이 열린 만큼 한국의 전통가락이 다양한 주법으로 연주되는 '설장구'로 시작했다. 이어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인 '태평무', 섬세한 가락과 기교가 돋보이는 '진도북춤'까지 경기도무용단을 대표하는 전통춤을 레퍼토리로 구성했다. 공연의 대미는 '농악무'가 장식했다. 타악과 전통춤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무용단의 우수한 기량과 예술성이 집약돼 있으며 소고춤, 장구춤, 상모돌리기 등을 선보여 관객의 흥을 돋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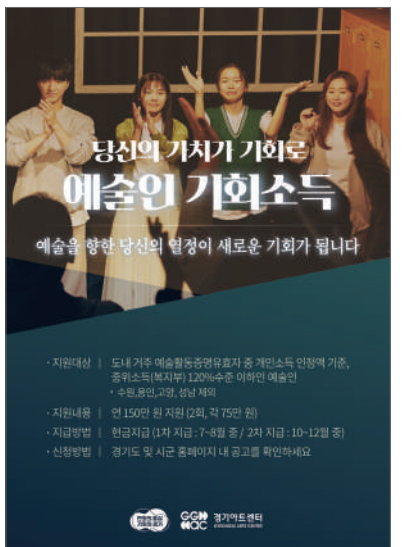
경기청년예술기획단 페스티벌 청년예술기획단 출범 후 맞은 첫 무대

경기아트센터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2023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을 아트센터 광장, 소극장, 열린무대에서 진행한다. 청년예술기획단 출범 후 맞은 첫 무대로 그간 공연예술분과, 정책연구분과, 홍보분과로 구분해 분과별 청년들의 생각과 꿈을 담은 노력을 이어왔고,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각 분과별로 공연과 정책연구 포럼 발표, 거리공연 등을 준비했다. 분과별 공연은 다원예술, 음악, 전통예술, 무용의 4개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월의 창작 기간을 거쳐 시연되는 첫 공연이다. 정책연구 포럼은 예술대학생, 청년 예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만들어진다. 예술대학생의 예술계 진입에서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창작 생태계 거점 조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공연도 페스티벌 기간 내내 열린다. 선정된 20개 팀이 본 공연과는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자리로 단체 속의 일원보다 개인별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라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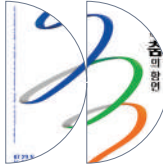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도민과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도민에게는 예술향유의 기회를"
경기도가 추진해온 예술인기회소득 관련, 수혜를 얻은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 등 도민과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경기아트센터를 비롯해 도청구청사, 의정부 음악미술도서관, 가평 음악역 1939 등 도내 권역별 총 9개소에서 열리며, 도민의 일상 속 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나눈다는 계획이다. 기회소득 추진 목적은 예술인들에게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창작의 동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번 기회소득 페스티벌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면서 예술의 가치를 공감하고 확산시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기회소득은 경기도 내 거주하면서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서를 갖고 있는 예술인 가운데 개인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4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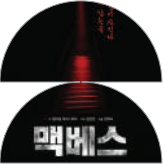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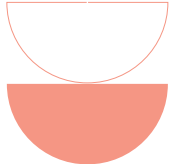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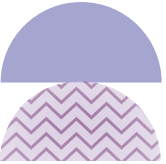
10 October

GGAC Story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2023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10:00~20:00 광장, 열린무대, 소극장 문의 ☎ 031-230-3395	3	4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 <오프닝콘서트 - 피아노 오케스트라>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263~5	5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 <My Favorite Sonatine> 15:00 <피아노 콜라보의 밤>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263~5	6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 <안드라스 쉬프 리사이틀>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263~5	7 2023 경기피아노페스티벌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두의 콘서트> 16:00 /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263~5 <피날레콘서트> 19:30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263~5
8 My Music & My Magic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262~9	9	10 	11	12 인도문화축제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266	13 	14 경기도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춤의 향연>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12~5
15		17	18	19	20 	21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24~3325
22 17:00> 롯데콘서트홀 문의 ☎ 031-230-3324~3325 고영열의 월하정인(月下情人) 17:00 / 경기국악원 국악당 문의 ☎ 031-289-6420	23 	24	25 고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Romantic Cantabile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262~9	26	27	28 2023 장운정 라이브 콘서트 14:00/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2-3665-6366
29 연연불망 그리움...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262~9	30	31				

기획공연 ☎ 031-230-3440 경기도국단 ☎ 031-230-3302~4 예술단 기획공연 경기도무용단 ☎ 031-230-3311~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031-289-6471~4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31-230-3321~5 기획공연

11 Nov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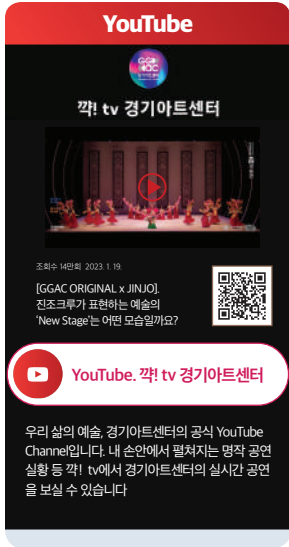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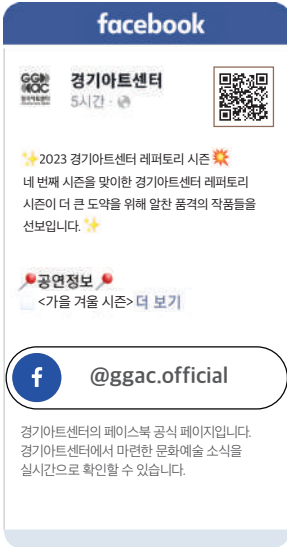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연극 <맥베스>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02~04	3	4 16:00>
5 	6 19:30>	7	8 	9 경기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X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19:30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24~3325	10	11 16:00>
12 	13	14 	15	16 토크콘서트 11월의 랑데북 20: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0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상기 공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티켓문의 ☎ 031-230-3441~2 (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 만남

경기아트센터 매거진 <예술과만남>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
e북, 뉴스레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편리하게 매거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소식, 문화예술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채널별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경기아트센터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만남'은 경기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매거진으로,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공연 소식을 비롯하여
국내의 문화예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 @magazineggac



본능은 갈등을 집어삼킨다

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각색 김민정 연출 한태숙



2023 11.2 목 - 11.12 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화수목금 19:30 토일 16:00 월 공연 없음

관람연령 13세 이상 예매 interpark 티켓 1544-2344



출연 윤재웅 성여진 서창호 한범희 임미정 이종우 육채진 김지희 안주하 윤성봉 이슬비 노민혁 황성연 황성대 김현진 김성태 이진혁 최예림 박창준 이원엽 장유찬 김민규 최준호

